IT p/12

hi-쉼마루 한국도로공사

빠른 귀성길 '앱'으로 해결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4일 목요일 제3050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0

이정재 역대급 팬 서비스

마지막 모의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3일 오전 서울 풍문여고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재학생 54만8977명, 졸업생 8만2004명 등 총 63만981명이 응시했다.<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한·중·일 기업 가치 뒷걸음질

시가총액 세계 500대사 집계… 3개국 기업 밀려
팍스아메리카나 위력 여전… 美 업체 약진 뚜렷

美, 톱10에 8개사 포함 삼성전자·현대차 하락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는 여전히 유효했다.

미국 주요 기업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주요 기업의 가치는 하락세다.

한·중·일의 주요 기업이 글로벌 경제를 옥박질렀던 1년 전과 비교할 때 큰 대조를 이룬다.

3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0대 기업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기업의 우위는 여전했다.

애플(1위)과 엑손모빌(2위), 구글(3위), 마이크로소프트(4위), 버크셔 해서웨이(5위), 존슨앤존슨(6위)이 지난해와 같은 자리를 지켰다.

글로벌 톱10 가운데 미국 기업이 아닌 곳은 네덜란드의 '로열 더치 셸(8위)'과 스위스의 '노바티스(10위)' 뿐이다.

500대 기업 가운데 미국 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13곳이 증가한 202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 기업들은 일제히 뒷걸음질 했다. 특히 일본 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50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은 총 31곳으로 1년에 비해 4개 줄었다. 톱20에 이름을 올린 일본 기업은 전무하다.

'탈아시아' 기업으로 손꼽히는 도요타마저 지난해 17위에서 22위로 5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이 외에도 미쓰비시 UFJ(83위→109위), 소프트뱅크(100위→101위), NTT 도코모(112위→124위)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졌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시총도 줄줄이 하락했다.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는 8계단(25위→33위), 현대차는 37계단(178위→215위)이나 밀렸다.

포스코(398위→436위), 현대모비스(409위→453위), 기아차(415위→500위 밖) 등도 예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SK하이닉스(374위), 한국전력(478위)이 500위권에 새로 진입한 게 위안이다.

중국은 한·일 기업에 비해 선방했지만 대다수 기업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막지 못했다.

10·11위에 랭크됐던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와 중국공상은행은 16·19위로 추락했고 중국건설은행(23위→28위), 중국농업은행(39위→51위), 중국은행(46위→57위) 등도 시총이 빠졌다.

한국의 게임 기업 넷마블과 카카오의 대주주인 인터넷·게임업체 텐센트가 74위에서 42위로 점프해 눈길을 끈다.

한편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기업경영윤리, 은행 건전성, 정리해고 비용, 정책결정 투명성 등도 바닥을 맴돌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2위를 기록했고 미국, 핀란드, 독일, 일본, 홍콩,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의 순이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 '스톱'

시민에 현장공개 후 결정

3일 오전 서울 신청사에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이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승인 요청과 관련해 서울시의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안전성을 시민이 먼저 점검하도록 한 뒤 임시개장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시민 자문단이 롯데그룹 측의 안전·교통분야 보완대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개장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임시개장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 열흘정도 영업하지 않고 임시개장 예정 구간을 개방해 시민, 전문가, 언론인 등이 미리 둘러보며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층부 사전개방은 토요일인 6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또 주차 유료화, 주차장 예약제 등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교통수요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롯데 측의 준비상황과 주변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는 현장 사전개방과 종합방재훈련 등을 통해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이르면 다음달께 저층부의 임시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주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의 이같은 결정에 "서울시는 임시사용 승인을 전제로 한 프리오픈 결정을 철회하고 승인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16년 말 준공될 제2롯데월드는 123층(555m)의 초고층 건축물로, 저층부 3개 동은 백화점동·쇼핑몰동·엔터테인먼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롯데 측은 당초 4월 임시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로 개장이 늦춰지고 있다. /이정우기자 cyclone@

추석선물 소포로 가득한 우체국 추석을 앞두고 2일 오전 서울동작우체국 직원들이 배달을 위해 선물소포를 구분하고 있다. 서울동작우체국에는 평소 물량의 2배에 가까운 1만5000통의 선물소포가 쏟아졌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그린벨트 내 캠핑장 설치 허용

온라인쇼핑몰 인증 간소화 등 규제개혁 방안 마련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해소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도시·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에 걸쳐 마련됐다.

우선 도시·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에만 허용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일부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을 담았다.

지난 2010년 서울 망우리 야산의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서울시 중랑캠핑숲. /연합뉴스

또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는 철폐할 계획이다.

인터넷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일 4000만 건이 발급돼 관리 불편과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은 종이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에서는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과 귀농·귀촌 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와 대상 개선 방안 등을 세부과제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국민 불신 자초하는 軍 기강 해이

기자 수첩
조현정 <정치사회부 기자>

신현돈 육군 1군사령관(대장)이 지난 6월 군사대비태세 기간 중 위수지역을 벗어나 음주 추태를 부린 사실이 밝혀져 전역 조치됐다.

군 당국은 2일 뒤늦게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신 사령관을 전역조치시켰다고 밝혔다. 대장(4성 장군)이 일상생활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해임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으로 군에 특별 경계태세가 내려진 상태였다. 신 사령관은 충북 청주의 모교를 방문, 안보 강연을 마치고 동창생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행원이 민간인의 화장실 출입을 막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청와대까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전선 전체의 방어를 책임져야 할 1군사령관이 근무 지역을 벗어난 것도 모자라 민간인들 앞에서 추한 모습까지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이 신 사령관의 품위 손상 행위를 파악하고도 세 달 가까이 쉬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 조사가 없었고, 국방부도 최근에 인사 계통을 거쳐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여파로 육군참모총장과 6군단장 등이 줄줄이 교체된 상황에서 현역 대장의 부적절한 행동까지 불거지자 군의 입지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4성 장군의 만취 추태인 만큼 국방부, 합참, 기무사 등 관련 군 부서 수뇌부는 이미 신 사령관 문제를 보고받았을 것이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책임자들이 왜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나올 수 밖에 없다.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군은 더 이상 국민 불신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흉악범 형기 후 사회 격리' 입법 예고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미 이행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 해결

터널통행료나 건축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떡, 참기름, 고춧가루 등 즉석제조가공식품의 배달을 허용해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관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됐다.

책 가격 할인폭을 15% 이내로 묶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 때 수리비 상한선은 사고 직전 가액의 120%에서 130%로 높아졌다.

이밖에 보험가입 때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수수료 내역이 간소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애로를 초래해 불필요한 규제로 지목됐으나 개선이 더뎠던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이 대부분 개선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 같은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했다.

90건은 이미 처리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1건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심의 중이다.

추진단은 이와 별도로 기업의 현장애로 102건을 새로 발굴해 추가 개선 과제로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유주영기자 boa@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1명 사망 3일 오전 1시 23분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지점)에서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가 탄 승합차가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아 멤버 고은비가 숨지고 나머지 멤버와 스타일리스트 등 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카스에 냄새' 소문 유포 혐의 경찰, 하이트진로 압수수색

일부 직원 개입 정황 포착

서울 수서경찰서는 하이트진로가 오비맥주의 대표 맥주인 카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는 단서를 잡고 3일 오전 하이트진로㈜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초동 하이트진로 사옥과 대전 등지에 있는 대리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오비맥주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와 관련한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중이다.

최근 오비맥주는 자사의 주력 제품인 카스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3일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하이트진로 사옥 모습. /연합뉴스

루머와 관련, "특정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카스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오비맥주에 대한 인터넷 악성 게시글의 IP 추적 결과 하이트진로 직원 등이 일부 개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트진로가 조직적으로 루머를 퍼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이후 오비맥주의 대표 제품인 카스를 마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SNS 등을 통해 관련 글이 퍼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차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냄새의 원인이 맥주 유통과정에서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내 용존 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킨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유병언 도피 총책' 오갑렬, 혐의 일부 부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대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심리로 3일 오전 10시께 열린 첫 공판에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사전에 (구원파 신도의) 양평 별장을 답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신도가) 대청소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은닉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변협과 민변, 주류와 비주류 사이

여의도 패트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전문직보다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변협의 지위는 다른 직역단체와 다르다.

변협은 특이하게 직역단체이면서 '변호사 징계권'이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거기에 변협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정부정책감시'를 한다며 다소 배포 큰 활동을 자신들의 역할이라 주장한다.

최근 세월호 정국에서 변협의 역할은 컸다. 진보단체에서는 군사정권시절 이후 최고의 활약상이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입장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인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법안이 바로 변협이 유가족을 위해 만든 '4·16 특별법'이다. 유가족들은 변협이 만들어 준 그 법안대로 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변협 전 회장단으로 구성된 원로 변호사들이 위철환 현 변협 회장을 만났다. 원로들은 수사·기소권은 전체 변호사 의견이 아니라며 의견 청취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여당에서 위헌적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사·기소권이 왜 변협의 법안에 들어 있느냐", "변호사들은 법에 가장 밝은 사람들인데 '위헌적'이라는 법리 논쟁이 벌어질 일을 왜 자초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변협 지도부와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4·16 특별법'을 만들고 세월호 법률지원단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 상당수가 민변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5월19일 변협이 공식적으로 유가족 대책위와 법률지원에 관한 MOU를 맺기 전까지는 민변 이름을 내걸고 활동했다. 정치 편향을 이유로 일부 유가족이 반대해 공식적으론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변협이 법률대리인이 된 이후, 세월호 법률지원단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

변협은 모든 변호사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단체다. 민변은 정치적으로 뜻이 같은 변호사들이 모인 임의 단체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모두 당연히 변협 소속이다. 여기에서 혼란이 시작됐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유가족들을 돕는 과정에서 '변협 소속'으로 이름 앞의 '소속'이 5월 중순부터 바뀌었다.

변협 원로들의 변협 방문은 민변과의 기싸움이다.

변협은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직역 이기주의에만 빠진 채 직역 방어에만 급급했고, 비주류 변호사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 것이 현재 변협의 지도부를 만들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의 조직이 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비주류가 지도부를 잡고 있고 주류가 뒤에서 지켜보는 형국이다. 어느 곳이나 주류·비주류는 있고, 비주류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가장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변협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유보좌

총천연색 꽃의 향연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에서 개막을 앞둔 '최정화-총천연색(總天然色)'전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오브제를 사용한 '꽃궁'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개최된다. /연합뉴스

"국비지원 없을땐 복지디폴트"

전국시군구협, 대책 요구… 정부 "재정 지원 이미 늘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 확대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 재정 지원을 이미 늘렸다며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일단 거부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무상보육의 경우 지난해에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서울 이면도로 제한속도 30㎞로

전체 도로 80%… 과도한 규제 논란 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편도 1차로 이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청은 3일 "시내 이면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30㎞로 내리고 차량 소통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내 도로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는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스쿨존뿐만 아니라 웬만한 골목길에서는 시속 30㎞ 이상 속도를 냈다가는 속도위반 범칙금을 물거나 사고 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서울청은 지난해부터 시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고시'를 통해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 전체 도로(8174㎞)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가 80.2%(6558㎞)를 차지,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여론이 제기될 수 있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내 도로 80%의 제한속도를 스쿨존 수준으로 줄이면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전망이다.

/윤다혜기자 ydh@

'투명사회실천 네트워크' 출범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역사에서 40여개 공공부문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의 출범식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청렴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권익위 제공

'AI·구제역' 축산 농가 이동 제한 해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병으로 축산 농가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가 4일부터 해제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자로 지난 8월6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남 합천과 7월25일 AI가 발생한 전남 함평 지역 축산 농가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는 위기 단계를 AI는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낮추고 구제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모의 수능 국어 A/B 모두 쉬웠다"

EBS 연계율 70%…'안전교육' 다수 출제

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국어영역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재학생 54만8977명, 졸업생 8만2004명 등 총 63만981명이 응시했다.

평가원은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에 따랐으며, 수준별 시험인 국어와 수학은 출제범위에서 제시한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췄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강조되는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영어와 사회탐구에서 안전교육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국어 A/B와 영어는 71.1%, 수학 A/B와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70.0%, 사회탐구는 70.5%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국어 A형은 6월 평가 때와 비슷하고, B형은 6월보다 조금 쉽고 작년과 비슷하게 나왔다"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수능을 쉽게 낸다고 했는데 그에 맞춰 쉽게 출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다혜기자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이 2일 '왜 여성인재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여대 제공

서울여대 '여성인재' 특강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이 최근 교내 학생누리관 소극장에서 '왜 여성인재인가'라는 주제로 새 학기 특강을 진행했다.

전 총장은 현 시대적 상황이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과 삶의 조화'가 정책 화두로 선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가 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최고경영진 여성 비율, 관리직 여성 비율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며 남녀가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방세 체납 458명 1인 1대 이상 외제차 보유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모두 486억7884만원을 체납했다.

고액 체납자인 이들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체납 인원과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조현정기자 jhj@

특전사 하사 2명 포로체험훈련 중 사망

2일 오후 10시 40분께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부대원 이모(23) 하사와 조모(21) 하사의 시신은 청주의 한 병원 영안실에 우선 안치됐다가 유족들이 동의해 국군 대전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한 전모(23) 하사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날 숨진 하사관들은 부대 내 모의훈련장에서 5인 1조로 포로체험 훈련을 받던 중 사고를 당했다.

훈련은 포로로 붙잡힌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팔을 뒤로 결박당한 채 머리에 두건을 쓰고 1시간 이상 버티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기자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아스팔트에 모스크바 지도

metro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시 어린이들이 아스팔트를 도화지 삼아 시의 지도를 그렸다.

이번 행사는 모스크바 박물관이 새 학기를 앞둔 어린이들에게 모스크바를 알리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련했다.

올해 2학년이 되는 사샤는 모스크바 지도 그리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모스크바 박물관 광장을 찾았다. 사샤는 "학교 가는 것 보다 친구들과 그림 그리는 것이 더 재미있다"며 "엄청난 크기의 아스팔트 위에 신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할머니는 화가"라며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화가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 박물관 관계자는 따찌야나와 예브게니 찌호노프 화가 부부가 어린이들을 지도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찌호노프 부부가 아스팔트 위에 분필로 그림을 그릴 것을 제안했다"며 "분필을 이용하면 쉽게 지웠다 그릴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율리아 두드키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IS 두번째 '美 기자 참수'

미국 사회 패닉… 오바마, 시리아 공습 결단 초읽기

'이슬람국가'(IS)가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를 참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로이터 연합뉴스

이라크 이슬람 수니파 반군인 '이슬람국가'(IS)가 2일(현지시간) 또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31)를 참수했다. 9·11 테러 13주년을 앞두고 이같은 동영상이 공개되자 미국 사회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동영상에서 IS 반군은 소트로프 기자를 칼로 살해했다. IS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라크를 공습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기자를 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공교롭게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일에 맞춰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동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리아 공습을 미뤄온 오바마 정부는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첫 번째 미국인 희생자인 제임스 폴리 기자의 참수 동영상이 공개된 지 10여일 만에 두 번째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야당의 공세 수위도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서둘러 시리아 공습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도 IS 격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과 시리아를 공습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단독 작전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당수 우방은 시리아 군사작전 참여를 꺼리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습 불참을 결정했고, 영국과 호주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명절 앞두고 '금호家' 또 형제의 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4천억대 부실CP 계열사 떠넘겨"… 지난달 형 고소

'금호가(家)'의 '형제의 난'이 재연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지난달 12일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석유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인 박삼구, 넷째 아들인 박찬구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현재까지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이 기록된 문건을 빼돌려 박찬구 회장 측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를 고소했다. 3월에는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이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지난달 고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신청 직후인 2009년 12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 두 회사의 기업어음(CP)을 4270억원어치 발행하고 이를 계열사에 떠넘겨 손해를 입혔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그룹 등의 CP 돌려막기로 파장이 컸는데 이보다 앞서 대규모로 CP 돌려막기를 한 기업이 금호아시아나"라면서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산업 등이 발행한 CP를 계열사가 매입한 것을 문제 삼아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11월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면서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금호석유화학 쪽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도와 법정관리 등을 피하려고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가 이들 회사의 CP를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market index <3일>

코스피 2051.20 (–0.38)

코스닥 571.40 (+2.66)

금리(국고채 3년) 2.53 (+0.02)

환율(원·달러) 1018.60 (+0.10)

모둠전·오색송편 판매 3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모둠전과 오색송편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4~7일 명절 주부들의 고민거리인 전을 종류에 상관없이 100g당 2500원에 팔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SW직군 실력만 본다

LG전자 서류전형 폐지

LG전자가 소프트웨어(SW) 기술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채용 제도를 도입한다.

LG전자는 "하반기 SW 프로그래밍 경연대회 'LG코드챌린저'를 올해 처음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없이 바로 인·적성검사와 면접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전공·학점어학점수 등을 기반으로 한 기존 서류전형을 LG코드챌린저를 통해 검증된 개인의 실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LG전자가 이 같은 채용전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지에서다.

LG코드챌린저는 3학년 2학기 이상 대학생(4학년 휴학생 가능)또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1차 온라인 경연(9월2~4일) ▲1차 경연을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2차 오프라인 경연(9월27일)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LG전자 사내 SW 코딩 전문가들이 평가에 나선다.

이 대회에서 우수 프로그래머로 선발되면 내달 중순 바로 인·적성검사와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기존 SW 직군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실시했던 SW 직무지필 시험과 최종서류전형 과정도 거치지 않는다.

인·적성검사와 면접전형에서 최종 합격하면 LG전자 입사 또는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양성운기자 ysw@

금융 총파업에도 은행 정상영업 14년 만의 금융권 총파업에도 전국의 은행 영업점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공기업 복지혜택 축소에 강력히 반발하는 기업은행 등 일부 국책은행은 파업 참가율이 높아 업무에 다소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삼성중공업 '독배' 마셨나

엔지니어링 합병 발표 이틀째 주가 하락 이어져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뒤 이틀이 지났지만 양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삼성중공업 주가는 전날보다 3.45%(1000원) 떨어진 2만7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엔지니어링도 6만9900원으로 2.78%(2000원) 하락했다.

이어 3일에도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2만68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4.11%(1150원) 추가 하락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6만6200원으로 5.29%(3700원) 더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양사가 해양분야에서 기본설계 능력이 없어 이번 합병으로 상선분야에서 경쟁 조선소와 삼성중공업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합병으로 규모를 늘렸지만,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두 회사 모두 그동안 적자폭이 커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주한 이치스 CPF와 에지나 FPSO 등 2건의 해양플랜트 관련 손실로 인해 올해 1분기 3600억원대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초 진행된 그룹 차원의 경영진단에서도 올해 말까지 1000여명 수준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할 것이란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2분기 2600억원대의 수익을 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통합으로 사업부 통폐합 등 후속조치를 내놓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공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의 분위기 탓에 그동안 눈치만 봤던 삼성중공업이 이번 통합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명분을 얻었다"며 "시기는 올해 말 합병이 완료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민준기자

직장인 추석 비용 33만원

직장들은 올해 추석 경비로 평균 33만6430원을 예상했다.

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남녀 직장인 847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비용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혼 직장인은 평균 39만여 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이는 미혼 직장인(평균 22만여 원)보다 17만원 넘게 많은 수치다.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으로는 부모·친지 용돈(57.0%)이 가장 많았다. 부모님·지인 선물(23.1%), 차비·주류비(9.7%), 음식장만(7.8%) 등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다.

한편 추석 상여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직장인이 69.3%로 압도적이었다. '충분하다'는 직장인은 4.7%에 그쳤다.

특히 31.5%는 추석 상여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연금복권520 제166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721082
		3조	353919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833160
4등	100만원	각조	33639
5등	2만원	각조	554
6등	2000원	각조	70, 96
7등	1000원	각조	4, 8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NH농협銀, 전국 철도역내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NH농협은행은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철도역사내 340여개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460여 전문매장에서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NH농협은행 제공

"뉴욕미술관 등 관람 하세요"

카드사, 가을맞아 공연·캠핑 등 문화 행사 풍성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카드사들이 풍성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공연과 전시에서 부터 캠핑과 체험활동까지 다양한 문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계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고객 유입까지 끌어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삼성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양일간 가족 동반 고객 100명을 초대해 '삼성카드 홀가분 캠핑데이'를 진행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캠핑데이 이벤트는 야외에서의 캠핑을 통해 일상 속 불필요한 생각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가족과 특별한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미니콘서트와 탁구대회, 미꾸라지잡기 등 체험 프로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특별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체험형 마케팅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홀가분 캠핑 데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카드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체험'을 전면에 내세운 행사도 있다. 꼬마 피카소를 위한 신한카드의 그림축제가 바로 그 주인공.

신한카드는 오는 20일 과천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에서 '제13회 꼬마피카소 그림축제'를 연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나의 위대한 꿈'이라는 주제로 행사장 곳곳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미션 게임도 마련됐다.

문화 관람의 질과 규모도 더욱 커졌다.

현대카드는 플래티넘 이상 고객들에게 세계 4대 현대미술관 무료입장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뮤지엄 패스(Global Museum Pass)' 이벤트를 시행한다.

한장의 카드만 있다면 뉴욕현대미술관부터 테이트 모던, 퐁피두센터, 모리미술관까지 세계 4대 현대미술관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세계 최고의 미술관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편안하게 현대미술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글로벌 뮤지엄 패스'를 마련했다"며 "이 이벤트를 활용하면 더욱 풍성하고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외환카드는 9월 한달간 '9월 만원의 써프라이즈·YES Culture 문화공연' 행사를 진행한다.

위키드와 프리실라, 조로, 난타 등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이 행사는 전월 사용 실적에 관계없이 외환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능하다.

외환카드 관계자는 "양질의 문화공연 컨텐츠를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을의 시작도 외환카드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감성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각 사 제공

정부, 금융권 퇴직자 고용 지원

금융권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태풍이 연일 몰아치자 정부가 긴급 고용지원 대책을 내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용 여건이 악화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금융권 퇴직자들이 중소기업 재무, 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과 학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과장 직급 요건을 삭제하고, 경영·무역·재무·회계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외에 5년 이상 해당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추가됐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연 1080만원의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는다.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증권·은행·보험업계의 구조조정 여파로 최근 1년 사이 금융권 일자리가 5만개 가까이 사라졌다.

지난 7월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총 84만5000명으로 지난해 7월(89만4000명)보다 5.5%(4만9000명) 감소했다. 연간 감소 폭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9월(8만4000명)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올해 4월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4월에 1만 명이 줄어든 데 이어 5월 2만9000명, 6월 4만8000명이 줄었다.

특히 증권업계는 올해 1월 동양증권에서 약 650명, 5월 삼성증권에서 30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에서도 6월까지 각각 약 410명, 190명이 퇴직했다. 대신증권도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받아 300명이 퇴사했다. /김민지기자 minji@

국민銀, 대체공휴일 ATM 수수료 변경

KB국민은행이 ATM 이용 고객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에 평일(영업일)과 동일한 기준의 ATM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KB국민은행 고객은 오전 8시30부터 오후 6시 사이에 KB국민은행의 ATM을 이용할 경우 출금수수료가 전부 면제된다. 타 은행 ATM 출금수수료도 영업시간외 수수료 보다 적게 적용된다. 계좌송금 수수료는 영업시간내/외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올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최초로 시행돼 10일은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다.

/김민지기자

손보사 해외점포 2년만에 적자… LIG 234억원 손실

금감원,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율 높아진 탓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이 해외점포에서 2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IG손보는 당기순손실 규모가 2298만 달러(234억원)에 달했다.

인도 홍수, 필리핀 태풍 하이옌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율 증가가 실적 악화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6개 손보사들은 23개 해외점포에서 47만7000 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손보사 해외점포가 반기 손실을 낸 것은 2012년 상반기(4~9월 기준) -636만 달러 이후 2년만이다.

손보사별로 보면 LIG가 작년 상반기 357만 달러 흑자에서 2298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의 아파트 화재사고 등 고액 보험사고가 잇따랐고 계약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바람에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코리안리도 1200만 달러 흑자에서 155만4000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싱가포르지점이 지출한 인도의 홍수·필리핀 태풍 피해 보상 탓이다.

반면에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1922만3000 달러, 307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익이 30만 달러, 66만 달러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지난해 780만 달러 흑자에서 2100만 달러 적자전환했다. 싱가폴(1540만 달러→470만 달러), 중국(720만 달러→550만 달러), 인도네시아(240만 달러→130만 달러) 등은 전년 대비 이익폭이 감소했다.

일본(100만 달러→130만 달러), 베트남(470만 달러→500만 달러), 영국(170만 달러→270만 달러) 등은 소폭 상승했다.

부채는 22억5500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억8900만 달러)보다 74.9% 증가했다. 부채 상승은 688백만 달러가 증가한 책임준비금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영업규모 증가에 따른 해외점포의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2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9억2700만 달러)보다 53.6%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한 7억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임대주택만 감면 혜택… 리츠펀드 전망은?

issue&view
리츠사 추가상장 걸림돌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상장 3개사 관리 종목 … 세제혜택 종료로 '첩첩산중'

내년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리츠(REIT's)·펀드 시장이 더 움츠러들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충분한 세제 지원 혜택을 부여한 만큼 향후 서민 전·월세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제외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부동산 리츠·펀드 시장은 기관투자자와 자산가 중심의 사모 폐쇄형 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의 상장 공모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일반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 공모형은 최근 줄줄이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상장리츠 부실 악재에 세제 혜택 종료까지 '이중고'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개 상장 리츠 가운데 올 들어 KB부국과 에프지엔, 이코리아 등 3개가 연달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된 리츠 종목의 절대적인 수가 적긴 하지만, 3종목 중 1종목 넘게 부실 판정을 받은 셈이니 작지 않은 비중이다.

관리 종목 지정사유는 저조한 매출 실적,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나타났다.

리츠업계에서는 9·1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리츠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난색을 표했다.

리츠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리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리츠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황에서 감면 혜택까지 없어지면 국내 부동산 리츠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리츠·펀드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거래소의 추가 리츠 상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수익률이 집계 가능한 국내 부동산 리츠·펀드를 보면 일부를 제외하면 연 7% 안팎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요구를 밑도는 수준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국내 부동산 리츠·펀드는 총 11개로 이 중 8개가 올 들어 플러스 성과를 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26%를 넘는 고수익을 낸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중 5개가 4~5%대로 중수익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다.

게다가 이들 펀드는 추가 가입이 되지 않는 폐쇄형이므로 사실상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국내 부동산 리츠·펀드가 몇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 "임대주택 외 세제 혜택 없어" 강경 입장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충분히 했으므로 앞으로는 서민 전·월세 수요 해결과 관련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세제 혜택을 모두 종료하게 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 없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당 기간 동안 세금 감면에도 불구,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경우에도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 뒤 세제 지원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에서는 민간 리츠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부각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9·1대책과 별도로 내년까지 시행된다"며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이 제도가 적용되며 공공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안한다고 하면 세제 감면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나SK·외환카드 통합추진단 출범 카드통합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한 임원과 하나SK카드 정해봉 사장(첫 번째 줄 왼쪽 세 번째부터), 외환카드 권혁승 사장, 통합추진단장 하나금융지주 곽철승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SK카드 제공

금융권, '징계 태풍' 몰아친다

오늘 KB금융 이어 우리銀도… 18일엔 카드사 줄줄이

금융권에 '징계 태풍'이 또다시 몰아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 원장이 추석 전에는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4일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와 CJ그룹 비자금 관련 실명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기관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제재심에서 이 같은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우리은행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신규 업무 중단 등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8일 예정된 제재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KB국민·농협·롯데 등 카드 3사를 비롯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된다. 카드 3사 CEO들과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 등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KT ENS 협력회사 부실 대출에 연루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및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특히 하나은행은 KT ENS 협력회사 부실대출에 이어 종합검사 제재까지 예정돼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주식 평가액 4년새 25% 증가

10대 그룹 최대주주

10대 그룹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이 최근 4년새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10대 그룹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평가금액은 올해 6월 현재 19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6월 152조1000억원에 비해 25.0% 증가한 규모다.

최대주주 등 소유 상장주식 평가금액을 보면 삼성이 60조4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45조280억원), LG(26조6300억원), SK(24조4370억원), 롯데(13조7190억원)가 뒤따랐다.

최대주주 등 소유 상장주식 평가금액 증가율을 보면 SK그룹이 93.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76.8%), GS(37.2%), 삼성(23.2%), 롯데(8.2%) 순이었다.

평가금액으로는 현대자동차가 19조50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최대였다.

6월 현재 10대 그룹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상장주식 총수는 29억2000주로 2010년 6월 26억8000주에 비해 9.0%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2012년 2월 SK그룹 편입(1억4600만주)과 대한항공의 올해 6월 한진해운 유상증자 참여(7400만주), GS리테일의 2011년 12월 상장(5000만주) 등도 영향을 줬다.

반면 10대 그룹 최대주주 등의 상장회사 지분비율은 이 기간 38.5%에서 35.7%로 다소 낮아졌다.

롯데그룹이 56.9%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가장 높았고, SK그룹이 24.4%로 가장 낮았다.

10대 그룹 상장회사 총 82곳의 시가총액은 655조1000억원으로 4년 전의 486조9000억원에 비해 34.55% 늘었다. /김현정기자

주식선물 시장조성 계약

거래소-6개 증권사

한국거래소는 대우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곳과 주식선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6개 증권사는 오는 15일부터 향후 1년간 신규 상장 35개 종목을 포함, 총 57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로서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는 장중에 시장조성 상품에 대해 상시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공급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활발한 거래여건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1곳당 9~10개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3틱 이내의 매도·매수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투자자가 언제든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연말까지 50종 타이틀 쏟아진다

MS 'X박스 원' 23일 출시

"연말까지 50종 이상 타이틀을 쏟아내겠다."

한국MS는 3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네모갤러리에서 'X박스 원 쇼케이스 2014'를 열고 게임 타이틀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다. 신형 콘솔 게임기 'X박스 원'의 23일 국내 출시에 앞서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레니 아따보 MS 아태지역 비즈니스 총괄 매니저는 "X박스 원 출시에 맞춰 20개 이상의 전용 타이틀도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가장 열정적인 한국 팬에게 더욱 많은 타이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타이틀은 남부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포르자 호라이즌2'다. 200종 이상의 세계적인 명차를 직접 운전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헤일로 : 마스터 치프 컬렉션', 생존을 위해 좀비들이 들끓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데드 라이징3', 죽어가는 숲의 비밀을 발견하는 최후의 혼령 수호자인 오리(Ori)의 성년기를 다룬 '오리 앤드 블라인드 포레스트' 등도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한국MS는 X박스 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제트기로 세계 여행을 하는 'X박스 하이 플라이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국명기자 kmlee@

영업정지 끝난 LG유플러스 '선방'

일 평균 3700명 이탈 그쳐… SK텔레콤은 영향 다소 클 듯

지난 1~2월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가 1주일간의 영업정지를 모두 마쳤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선별된 SK텔레콤은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2일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2만5940명을 경쟁사에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1만8654명, KT는 7286명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영업정지 기간 LG유플러스는 하루 평균 3700명씩 가입자를 잃은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단독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월 7~31일 단독 영업정지 당시 하루 평균 7900여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 이탈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현재 통신시장 빙하기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9월 전략 스마트폰의 대거 출시를 앞두고 고객들이 관망세를 보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모두 불법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경쟁을 통한 고객 혜택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통신시장이 다소 빙하기에 접어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갤럭시 알파', 애플 '아이폰6' 등 인기 스마트폰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제품 출시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덜 받은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업정지 기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크게 낮았다. 번호이동 건수가 가장 높은 지난 2일도 1만3190건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시장 과열 지표로 삼는 2만4000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추석 연휴 이후 최대 성수기를 기해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3일 이통 3사를 통해 메탈 소재 테두리를 적용한 슬림 디자인의 스마트폰 '갤럭시 알파'를 출시했다. 국내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데다 고급스런 메탈 소재를 채용해 이통 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석 이후 SK텔레콤은 영업정지 일정상 갤럭시 알파 마케팅을 이어가기가 다소 쉽지않은 상황이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추석이나 10월부터 적용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변수가 많아 향후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요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재고 처분을 위해 한 이통사에서 불법 보조금 살포가 이뤄질 경우 경쟁사들도 가세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LG전자, IFA서 업그레이드 '홈챗' 공개 LG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홈 서비스를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가전전시회 'IFA 2014'에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스마트홈 서비스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가전제품과 채팅하는 '홈챗'에 구글의 스마트 온도조절기 '네스트'를 연동한 것이다. /LG전자 제공

협의 이혼

■칼럼 박민성 변호사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그 협의이혼 절차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그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신청해야 하고, 그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해 준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위 확인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이혼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의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협의서는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진 02)592-2224

이건희 삼성 회장 많이 회복됐다

이준 전무 "당분간 계열사 합병 없을 것"

이건희(사진) 삼성 회장의 건강이 갈수록 호전되고 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이준 커뮤니케이션팀장(전무)은 3일 삼성 수요사장단회의 직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이 회장의 반응이 확실해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전날 아트포럼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이 회장의 건강 호전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서서히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삼성서울병원에 4개월째 입원 중이다.

더불어 이 팀장은 후속 사업구조 재편에 대해 "당분간 계열사 간 합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팀장은 "삼성SDS와 제일모직

(옛 삼성에버랜드) 상장이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은 올초에 결정된 것이고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공고가 난 서울 강남 한국전력 본사 부지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데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zen@

숨이 멎을 듯… 수중 파노라마 '찰칵'

중국 131조 웨딩시장 경쟁 후끈… '인어공주' 화보로 차별화 '호평'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숨이 멎을 듯 환상적인 수중 파노라마가 펼쳐지죠."

중국 상하이의 소규모 웨딩 업체가 수중 촬영으로 예비 부부들을 사로잡아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매년 1000만 여 커플이 결혼한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웨딩 산업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중국 국영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결혼 시장 규모는 연간 8000억 위안(약 131조원)에 달한다.

시장이 커진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웨딩 서비스 업체 '미스터 웨딩'은 2003년 결혼 시장에 발을 디뎠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결혼사진 촬영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고객의 반응은 싸늘했다. 별다른 특색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웨딩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수중 촬영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덕분에 현재 월 매출 40만~50만 위안(약 6600~82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업체의 티나 리우 대표는 "물 속에서는 지상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다"며 "인어공주와 왕자를 연상시키는 수중 화보가 커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인 한 커플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웨딩 촬영을 하고 싶었다"며 "시원한 물속에서 화끈한 포즈를 취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푸른 잔디밭과 하얀 비둘기 배경은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수중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상하이에만 수십여 개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서비스를 제공해온 곳은 많지 않다.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촬영 시간도 오래 걸려서다.

수중 촬영을 위해 머리를 손보고 화장을 하는 데만 보통 두세 시간이 걸린다. 화장이 물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방수 제품을 이용해 신랑과 신부를 꾸미는 게 특징이다. 수중에서 사진 15장을 찍는데 드는 비용은 2000위안(약 33만원) 정도다.

미스터 웨딩은 특수 제작한 탱크에 따뜻한 물을 붓고 그 안에서 커플이 포즈를 취하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촬영 내내 수상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다. 꽃 단장을 마친 남녀가 숨을 깊이 들이마신 채 물속으로 들어가면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스터 웨딩은 수중 촬영에 이어 최근 '공중 촬영'도 준비하고 있다. 드론(무인기)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서 하늘에서 웨딩 촬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리우 대표는 "아직 낯선 콘셉트이지만 드론 웨딩 촬영도 수중 촬영처럼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동부 카지노 줄줄이 폐업 최근 문을 닫은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의 레블 카지노 앞을 2일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 카지노는 올들어 애틀랜틱 시티에서 폐업한 3번째 카지노다. /AP 연합뉴스

'아이폰6' 기대감 해킹 사건 덮었다

애플주가 사상 최고치

해킹 사건 여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2일(현지시간) 뉴욕 나스닥에서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78% 오른 103.30 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9월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6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애플의 주가는 올들어 약 30% 상승했다. 특히 최근 10거래일 중 이틀을 제외하고 종가 기준 신고가를 매일 갈아치웠다.

한편 애플은 제니퍼 로런스 등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아이클라우드에 보관하던 누드사진 등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시스템이 침해된 탓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연예인 계정 해킹이 특정 사용자 이름, 암호, 보안 질문 등을 놓고 집중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사례 중 아이클라우드나 내 아이폰 찾기 등 애플 시스템이 침해당해서 생긴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인재 떠나고 신작효과 사라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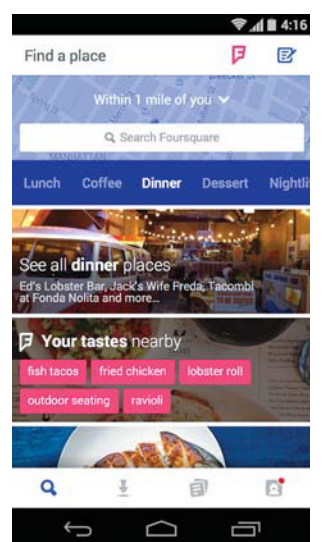
벤처 신화 '포스퀘어' 몰락 위기

'벤처 신화'로 주목받던 위치기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포스퀘어'가 침몰위기에 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앱 분석 서비스 앱애니는 포스퀘어의 미국 iOS용 앱 내려받기 순위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026위에 그쳤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3월 중순부터 2012년 12월 중순까지 500위 밖으로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하락세다. 새 버전이 나오면 거의 항상 100위 안으로 순위가 치솟았지만 올 들어서는 '신작효과'도 사라졌다는 평가다.

고객평가도 갈수록 박해지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포스퀘어의 최신 버전(8.0.2)에 대한 고객 250명의 평균 평점은 3점에 그쳤다. 전체 버전을 통틀어 고객 9만1564명이 남긴 평균 평점이 4점인 것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다.

포스퀘어는 불과 2~3년 만해도 가장 주목받는 벤처기업 중 하나로 꼽혔다. 위치기반 서비스(LBS)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결합한데다가 '체크인'을 놓고 지인들과 경쟁을 벌이는 게임적 요소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을 새로 만든 '스웜' 앱에 넣는 실수를 범한 데다 핵심 인력의 이탈로 포스퀘어의 몰락은 가속화하고 있다고 앱애니는 분석했다.

/이국명기자

'앱'만 잘쓰면 고향길 두배 빨라진다

휴게소·날씨·내비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고향을 찾는 마음은 즐겁지만 귀성길 정체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추석 연휴를 현명하게 보내게 하는 IT 서비스를 소개한다.

장시간 운전에 휴게소 정보는 필수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쉼마루 휴게소 정보' 앱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정보를 제공한다. 이 앱은 현재 위치 또는 경부선·서해안선 등 노선별로 정리된 휴게소 정보를 서비스한다. 음식,서비스, 조경 평가 등이 반영된 휴게소 평점 정보를 통해 미리 휴게소를 다녀간 사람들의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 졸음 운전이 걱정되는 귀성객을 위해 수면실 추천 기능도 제공하며 이 밖에 수유실,샤워실,경정비,패스트푸드점 등 상황에 맞는 휴게소 검색도 가능하다.

차례를 마친 후 휴식을 위한 여행 추천 앱도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은 전국의 관광정보를 소개한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관광지와 문화시설을 추천해주고 기분 전환을 위한 이색 테마 여행지도 안내한다. 영화 테마여행 기능을 선택하면 영화·드라마·소설 속 배경이 됐던 장소도 알려준다.

변덕스런 가을 날씨를 예보하는 날씨 앱도 유용하다. '케이웨더'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예보 날씨 앱이다. 총 4종류로 선보여지는 이 앱은 시간별·날짜별 날씨 정보뿐 아니라 골프 날씨, 날씨별 미용관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기상청에서도 앱을 운영한다. 앱 '기상청'은 1~3시간 단위로 오늘의 날씨를 예보한다. 기상 특보를 헤드라인에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관심지역 날씨,내 주변날씨,도시별날씨 등도 간편하게 알 수 있다.

한편 무선 트래픽 양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맞아 통신사도 만반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추석 연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고속도로와 터미널 등지에 통신장비를 증설하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무선 트래픽은 평소 대비 최대 20% 넘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 연휴 귀성길·귀경길을 돕는 통신사 내비게이션 브랜드도 눈길을 끈다.

SK플래닛 'T맵'은 SK텔레콤의 업계 1위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입자 1700만명, 월 이용자 75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T맵은 버전 4.4를 선보이며 자주 가는 경로 설정,대중교통 정보,저렴한 주유소 검색,출발 시간 추천 기능 등을 추가했다.

KT의 '올레 내비'는 최근 다음커뮤니케이션 제휴를 통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두 배 이상 늘렸다. 최저가 주유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류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KT는 추석 연휴 내비게이션 사용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올레 내비 서버를 50% 증설했다.

LG유플러스는 비디오형 내비게이션 '내비 리얼'를 선보였다. 내비 리얼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도로사진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 전방 500미터 지점에 접근하면 사진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후 200미터 전방부터는 차량 속도에 맞춰 사진이 천천히 줌인되는 방식이다.

맵퍼스의 '아틀란3D 클라우드' 무료 내비 앱은 이용자끼리 실시간 교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스팟' 기능이 특징이다. 이 앱은 별도의 지도 데이터를 내려받을 필요가 없어 가벼운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9인치 이하 기기는 윈도8.1 공짜

한국MS '빙' 대중화 전략 공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신 운영체제(OS) 윈도 8.1이 국내에서도 공짜로 배포된다.

최근 MS는 자체 검색서비스 '빙'을 탑재하는 디바이스에 한해 윈도를 무료로 배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된 셈이다.

장홍국 한국MS 디바이스 사업부 상무는 3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달라진 라이센싱 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MS는 화면 크기가 9인치 이하인 제품에 윈도 최신 버전인 '윈도8.1 위드 빙'을 무료로 제공한다.

스마트폰의 화면은 최대 6인치인 만큼 무료 OS 배포 대상에 포함된다.

9인치 이상의 중·대형 액정을 지닌 기기에는 정가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이는 '빙'의 대중화를 위한 전략이다.

장 상무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라이센싱 변화가 하드웨어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싼 가격에스마트기기나노트북을 장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홍국 한국MS 상무가 윈도8.1 위드 빙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MS 제공

이날행사장에 등장한 브랜드는삼보컴퓨터, HP, 에이서, 주연테크, 한성컴퓨터 등이 있었고 이들 제품의 가격은 20만원대에서 40만원대로 저렴했다.

쉽게 말해 '빙'을 기본 검색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윈도 8.1 위드 빙'을 장착할 경우 10만~30만원가량의 OS 구입비를 덜 수 있어 제품 가격이 대폭 떨어진다.

윈도 최신 OS를 탑재한 이들 브랜드의 기기는 곧 시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

갤럭시알파 사세요 3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월드 매장에서 직원들이 메탈 소재 테두리를 적용, 이날 새롭게 출시된 삼성 갤럭시알파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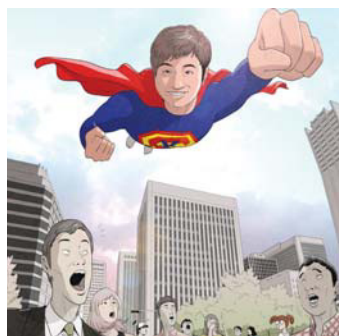
개그맨 유세윤 만화가로 변신

다음에서 웹툰 '유턴' 연재

개그맨 유세윤이 웹툰 작가로 변신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개그맨 유세윤의 웹툰 '유턴'을 다음 만화속세상에서 연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웹툰은 유세윤이 1년 넘게 준비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부터 다음 만화속세상 협의를 거친 끝에 웹툰을 선보이게 됐다.

국내 최초 'SF 공상 과학 모험 휴먼 드라마'를 표방하는 유턴은 스마트폰에 빠져 개성을 잃어가는 현대인을 다룬다. 미래에서 온 주인공 유세윤이 '유턴'이란 모임을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피폐해진 미래를 바꾸기 위해 나선다는 내용이다. 시놉시스는 유세윤이 직접 썼으며 지인 백승현 PD,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의 공지원 작가, '세이브'의 이규환 작가가 팀에 합류해 공동 작업을 벌였다.

다음 만화속세상에서 3일부터 연재되는 유세윤의 웹툰 '유턴'. /다음 커뮤니케이션 제공

10일부터 시작되는 본편에는 개그맨 장동민과 유상무 등 작가와 친분이 두터운 연예인들이 곳곳에 등장해 보는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만화가로 데뷔한 유세윤은 "나는 미래에 생길 일을 기대하기보다 과거에 좋았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더 즐겁다. 빠르게 미래로 가는 세상이 두렵고 아쉬웠다. 잠시 스마트폰에서 눈을 돌리고 현재의 수 많은 행복들을 충분히 느끼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유턴을 기획했다"면서 "그래도 대다수의 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턴'을 감상할 테니 웹툰을 보는 그 순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한다"고 재치있는 연재 소감을 말했다. /장윤희기자

야구의 모든 것을 WD Red에!

웹툰작가 최훈의 NAS 전용하드 WD Red 6TB 이야기

1. 대표적인 1세대 웹툰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웹툰을 그리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웹툰 작가로 어떻게 데뷔하셨는지?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었고, 돌아오자마자 운좋게도 일간스포츠에서 '하대리' 연재를 시작하며 데뷔했죠. 스포츠신문에 연재하다 자연스럽게 웹툰 작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2. 처음 웹툰 작가를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웹툰의 경우, 피드백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짧은 호흡에서 바로 바로 독자들에게 재미를 줘야 하는 점이 힘들죠. 간혹, 저장 매체에 있는 작업물이 날아가버려 의욕상실에 빠져버릴 때도 있었어요.

3. MLB카툰에 이어 프로야구 웹툰을 그리고 있는데요. 야구 웹툰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린 시절부터 야구하는 것도, 야구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다른 웹툰을 그리며 쌓인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야구를 주제로 만화를 풀고 싶어 야구 웹툰을 시작하게 되었죠.

4. 엘지 팬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전 보통 팀에 감정이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잘 하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힘든 시기를 넘어서 잘 된 선수라면 더욱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엔 손주인 선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5. 클로저 이상용을 연재 중이신데 만화 속 캐릭터를 만들 때 실존의 선수를 참고하신 건가요? 가상의 인물이라면 실제 주인공 삼아 만화를 그리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요?

실존 선수를 참고한 건 맞지만, 몇몇 캐릭터를 빼고는 일부러 여러 선수의 특징을 섞어놓아 딱 누가 누구의 모델이라는 건 없습니다. 김용의, 김영관, 안태영. 선린인터넷고 클린업을 모델로 한 만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여행이라던지 별도로 간접 경험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프라모델과 작가별, 장르별 전집류를 모으는 거예요. 원래 여행을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네요.

7. 프로야구를 소재로 해서 웹툰을 제작하고 계신데요. 매일 매일 달라지는 소재를 대체 어떻게 웹툰으로 완성시키는 건가요? 작업 과정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경기를 보면서 메모를 하고, 야구커뮤니티에서 이슈를 확인한 후 영상, 사진, 기록 등의 데이터를 모아봅니다. 네 경기 모두 종료되면, 하일라이트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봐요. 소재가 정해지면 낙서하듯 이런 저런 이미지들을 그리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PC에 직접 타블렛을 이용하여 스케치를 합니다. 러프 스케치가 끝나면 깨끗한 펜선을 넣고, 색을 칠하면 완성이 되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역시 저장입니다. 아무래도 매일 프로야구 경기 이슈에 대해 연재를 하다 보니 작업물이 날아가면 타격이 크죠.

8. 웹툰 작가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독자가 있나요?

MLB카툰 블라디미르 게레로 편에서 게레로가 커트실링, 케빈 브라운 등의 엉덩이를 때리는 컷. 이 컷으로 말미암아 게레로에게 게선생이란 별명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도 잘하는 선수에게 선생이나 교수를 붙이는 일이 흔하죠.

9. 웹툰 작가를 희망하는 지망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좋아하는 걸 그리고, 스스로 즐기세요. 자기 자신에게 재미없는 만화가 다른 이에게 재미있을리 없습니다.

10. NAS 시스템을 알고 있었나요?

클라우드 개념과 비슷한 개인 서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 주변 작가들도 사용하고 있다고 듣기도 했었어요.

11. NAS를 직접 써보니 어떤가요?

자료 저장과 언제 어디서든 공유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상당히 매력적이라 생각했어요.

12. 실제로 데이터 사용량은 얼마나 되며, 하드는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pc는 1테라+20기가 정도 될 거예요. 각종 사진, 영상 자료들이 4~500기가 정도이고, MP3가 50기가 정도 있네요.

13. 6TB 하드를 써보니 어떤지?

점점 늘어나는 자료들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용량 걱정 없이 자료들을 모으고 있어요. 미드나 영화, 야구 동영상 등 마음 놓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14. 웹툰 작가라면 트렌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WD BGBRP 컬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히어로 전대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각 칼라별로 상징하는 성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로 역시 뭔가 잘 싸울 것 같은 레드나 블랙같은 색이 좋아요.

15. 본인의 웹툰과 가장 잘 어울리는 WD 컬러가 있다면 어떤 컬러일까요?

기능으로 보자면 가장 어울리는 건 레드예요. 일단 저는 매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허우적대며 일하니까요.

16. WD Red를 추천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거리에서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동료 작가이자 친구인 곽백수 작가. 밖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를 바로 NAS로 보낼 수 있잖아요. 하루종일 동분서주하는 경향 신문 야구 기자인 이용균 기자에게도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되겠네요.

‘가을 관광주간’ 어디로 떠날까?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관광주간 설정
교통·숙박 등 최대 75% 할인 행사 이벤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내관광 할인과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가을 관광주간’을 추진한다. 17개 시도와 3745개의 관광업체가 준비한 가을여행을 떠나보자.

◆각 시도 특색 살린 프로그램 가득

먼저 각 시·도가 ▲30~40대 가족여행 ▲50대 동창여행 ▲20대 청춘여행 등 연령대별 타깃 프로그램을 포함한 156개의 여행 코스를 마련했다.

특히 전남은 세월호 사고 여파를 지역관광으로 극복하고자 진도 코스(4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나는 남도로 간다, 청춘 자유여행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인천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천 방문 확대를 위해 주요 관광지와 아시안게임을 연계한 코스를 선보인다.

이 외에도 전북에서는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섬진강 여행’을 만날 수 있고 강원은 ‘물레길 페스티벌’과 ‘비무장지대 열차(DMZ-Train)’ 연계 프로그램을, 충북과 충남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코스를 활용한 ‘천주교 성지순례 코스’를 운영한다.

◆너도나도 대국민 할인

관광주간에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12개 기업도 대국민 할인에 참여한다.

코레일은 관광주간 동안 상·하행 열차 11편과 O-Train, S-Train 등의 관광열차 운임을 할인한다. 게다가 금호고속은 고속버스 5·7일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관광주간 내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된 관광지 인근 SK에너지 주유소 70개소에서는 주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산롯데호텔 ▲부산파크하얏트 ▲거제 삼성호텔 등 전국 500여 개 숙박업체도 대국민 할인에 나서며 관광공사가 지정한 중저가 숙박시설 역시 가격을 내린다.

또 547개의 지역 추천 맛집과 음식테마거리 음식점 160개소, 농가 맛집 등 전국 1607개의 음식점이 저렴한 가격에 먹거리를 책임지며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시설 437개도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전국 어디서나 만나는 여행콘서트

관광주간에는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전국적으로 총 165회의 여행콘서트가 펼쳐진다.

부산 광안대교와 하동 최참판댁에서는 재즈 공연이, 순천 낙안읍성에서는 창작 타악 공연이 펼쳐지는 등 지역 관광지에서 클래식과 무용·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린다.

이와 별도로 관광공사는 오는 21일까지 ‘사장님 휴가 보내주세요’ 이벤트를 진행해 1000명에게 1박2일 휴가여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4000여 명은 우수 국내여행 상품 이용권과 숙박권 등을 받게 된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 연휴부터 10월 말까지 관광주간을 자율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리조트서 즐기세요”

추석 맞이 다양한 이벤트

전국의 리조트들이 추석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에 풍요로운 추석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리조트의 놀거리를 소개한다.

먼저 대명리조트(사진) 비발디파크 오션월드는 6일부터 14일까지 최대 75% 할인되는 ‘오션월드 특별 균일가 이벤트’를 준비했다. 귀성객 또는 지역 주민은 동반 3인까지 2만원, 대명리조트 회원은 동반 3인까지 1만5000원에 오션월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오션월드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부대업장 1+1 쿠폰’과 ‘식음업장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곤지암리조트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곤지암 한가위축제 한마당’을 연휴 기간 진행한다. 상설 행사로 ▲대형 윷놀이 ▲외줄타기 ▲널뛰기 ▲활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곤지암 전통놀이 릴레이’가 펼쳐지며 미션을 성공하고 스탬프를 찍어오면 선물이 주어지는 ‘곤지암 전통놀이 투어’도 함께 열린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도 풍성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양평은 전통놀이 체험과 한가위 케익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천 파로스는 가족끼리 정을 나눌 수 있는 요리 체험을 준비했다. 여기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63씨월드, 아쿠아플라넷 여수·제주·일산은 6일부터 9일까지 ‘아쿠아 풀 문 페스티벌’을 개최해 수중 민속놀이 퍼포먼스와 함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전개한다.

/황재용기자

롯데월드 ‘한가위 큰잔치’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한가위를 맞아 축제 한마당 ‘2014 한가위 큰잔치’를 진행한다. 5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후 7시 테마파크 안에서 우리의 전통놀이 ‘한가위 강강술래’를 벌인다. 이 밖에 명절 연휴 기간 게릴라 민속놀이, 한가위 특집 공연 등이 펼쳐진다. /롯데월드 제공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 개관 도약 선언

총 1022개 객실… 북미 제외 세계 최대 규모

인천국제공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이 호텔의 ‘웨스트 타워(West Tower)’ 개관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기존 522개 객실의 ‘이스트 타워(East Tower)’에 웨스트 타워 500개 객실을 추가하며 총 1022개 객실을 보유하게 된 호텔은 전세계 하얏트 호텔 중 북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추게 됐다.

특히 웨스트 타워는 친환경 건물 인증(LEED) 골드 등급에 맞도록 디자인됐으며 2층 ‘스카이 브리지’를 통해 이스트 타워와 연결된다.

장기 투숙 고객을 위한 레지던스 객실은 인근의 인하국제의료센터를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 비즈니스를 위해 장기간 투숙하는 기업 고객 등에게 ‘내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웨스트 타워의 ‘그랜드 카페’와 ‘스웰 라운지’ 등으로 호텔은 총 4개의 레스토랑에서 운영하게 됐으며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연회 공간인 야외 이벤트 데크도 마련했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 전경. /그랜드 하얏트 인천 제공

또 이스트 타워 11층과 웨스트 타워 12층에 각각 위치한 그랜드 클럽 라운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며 전담 컨시어지를 통한 신속한 체크 인·아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호텔은 고객 편의를 위해 15분마다 공항과 호텔을 왕복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 시내와도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협회, 올바른 선택요령 8가지 소개

추석을 앞두고 선물 준비가 한창이다. 최근 선물 트렌드는 역시 건강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를 돕기위해 건강기능식품 선택요령 8가지를 소개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해야

먼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실험·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인정한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선물 받을 사람 건강상태 확인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성분·섭취량·섭취방법을 꼭 확인해 선물 받을 사람의 몸에 알맞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인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한과 원재료명 체크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 남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원재료명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과대 표시·광고에 속지 말아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 정보 표시뿐 아니라 TV·라디오·

신문·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사전심의필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치료 목적의 선물은 금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과 전문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일 뿐이다.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반품·교환 때 포장 훼손에 주의

대형마트나 전문점·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특히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원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개봉해 섭취하도록 유도해도 절대로 뜯지 말아야 한다. 물품이 훼손되면 해약과 반품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구매 시 한글표시 확인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등을 이용해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건강기능식 확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에 들어가면 구입장소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구매와 안전 정보,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잘팔리는 캡슐담배… 전년比 2배↑

'투인원' 제품 인기 속… KT&G '에쎄 체인지' 돌풍

최근 국내 담배 시장의 화두는 '캡슐담배'다. 대부분의 담배 제조사들이 캡슐담배를 내놓고 있을 정도다.

캡슐담배란 담배 필터 속에 향캡슐을 넣어 소비자가 이를 터트리면 두 가지 이상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지난 6월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된 담배 중 캡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1.97%로 전년 동월 5.23%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추세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식음료 시장에 한번에 두가지 맛을 제공하는 이른바 '투인원'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캡슐담배에도 영향을 줘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올 여름 마른 장마로 일찍 찾아온 무더위도 캡슐담배

출시 1년만에 1억갑 판매를 기록한 KT&G의 '에쎄 체인지' 제품군. /KT&G 제공

소비 증가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7월 한 달 편의점 담배 판매량 가운데 캡슐담배 판매 비중은 전월보다 5%이상 증가했다.

국내 캡슐담배 시장의 포문을 연 제품은 2010년 선보인 KT&G의 '레종팝'이다. 이후 여러 담배 제조사에서 캡슐담배를 간간히 선보여왔지만 2012년까지 전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안팎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해당 제품류는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10%를 돌파했다. 틈새상품이었던 캡슐담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캡슐담배의 인기돌풍을 이끌고 있는 제품은 단연 KT&G의 '에쎄 체인지(ESSE CHANGE)'이다. 지난해 6월 출시된 KT&G의 에쎄 체인지는 세계 최초의 초슬림 캡슐담배다.

30여 종에 이르는 다른 캡슐제품을 제치고 단기간에 국내 캡슐담배 중 판매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이 제품은 출시 약 1년만에 누적 판매량 1억갑을 돌파했다. 회사 측은 "국내 캡슐담배 3갑중 1갑이 에쎄 체인지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쎄 체인지 1mg·4mg·에쎄 체인지W' 등 총 세개 제품군을 합치면 캡슐담배 시장의 33%를 차지할 정도라고 회사 관계자는 귀띔했다. /정영일기자

롯데칠성, '한방에다린' 영상 인기

롯데칠성음료는 3일 자사의 생활비법차 '한방에다린' 영상이 유튜브 업로드 5일만에 조회수 100만뷰를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된 '한방에다린 따귀편'은 '한방이 필요한 당신께 한방을 권합니다'라는 콘셉트로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신개념 한방차 '한방에다린'을 홍보하고, 아침 막장 드라마 속 장면 등을 재미있게 패러디 해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회사 측은 이 외에도 스크리밍편·락밴드편·사주카페편 등 총 4편을 각 제품 콘셉트에 맞게 제작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감정 폭발로 평온이 필요한 순간에는 '평온차', 열정이 넘치거나 부족해 기운이 필요한 순간은 '기운차', 현명하게 대처하는 슬기가 필요한 순간을 위한 '슬기차' 등 총 3종으로 한방에다린 제품을 알리고 있다. /정영일기자

나뚜루팝, 더블 사이즈업 이벤트

최고급 천연 프리미엄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www.natuur-pop.com)이 추석을 맞아 3일부터 5일까지 멀티플컵 아이스크림 사이즈를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헬로추석' 이벤트를 실시한다.

'헬로추석' 이벤트는 멀티플컵(460g, 1만원) 아이스크림 구매 시 1000원을 추가하면 컵 사이즈를 두번 업그레이드해 파티컵(840g, 1만7500원)으로 제공하는 행사다. 파티컵 아이스크림을 기존보다 65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실속 있는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휴게점 및 일부 매장은 제외된다.

수입 제수용품… 내린 것이 많다

28개 품목↑, 33개 품목↓

추석을 맞아 외국산 농산물 가운데 지난해보다 고사리·고추·도라지·마늘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무·밤·양파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제수용품 중 오징어와 민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량은 감소했으며 돼지고기·쇠고기 수입량은 각각 41.3%와 0.6% 늘었다.

관세청이 추석을 맞아 추석연휴 시작 5주전에서 1주전까지인 지난 8월4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설 성수품 수입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조사기간에 비해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은 66품목 중 28품목이 상승했고 오히려 33품목이 하락해 가격이 내려간 품목들이 많았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구성연휴 1주전을 비교한 결과에선 농산물의 경우 대추·무·팥 등은 수입가격이 상승했지만 고춧가루·밤·당근 등은 하락하는 등 36품목 중 15품목은 올랐으며, 16품목은 내렸다.

축산물은 소시지와 기타 냉동돼지 등은 상승했지만 닭가슴·닭다리·닭날개 등은 하락하는 등 축산물 10품목 중 6품목이 상승했고 4품목은 하락했다.

수산물 주요 20개품목 가운데 고등어·대게·아귀 등 7품목의 수입가격은 올랐고, 임연수어·가리비·오징어 등은 13품목은 하락했다. /정영일기자

패션 브랜드 중국 진출 박차

주요 백화점 잇딴 입점, 특화 제품으로 공략

국내 패션 브랜드의 중국 진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는 특히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FTA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 중국 최대 규모의 패션 전문 박람회인 'CHIC(China International Clothing & Accessories Fair)'에서 인정 받은 한국 브랜드의 진출이 눈에 띈다.

더 베이직하우스(대표 우종완)는 이겸비 디자이너가 함께한 슈즈 브랜드 겸비(Kyumbie)가 지난 3~6월 중국 주요 도시에 5개 단독 매장을 잇따라 론칭하며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더베이직하우스 제공

겸비는 지난해 4월 아시아 최대규모 패션 전문 전시회인 '베이징 CHIC페어'에서 'BEST VMD(Visual Merchandising)'에 선정되며 중국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겸비 디자이너는 해외문화홍보원에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10인'에 유일한 슈즈 디자이너로 소개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 2012년 10월 이겸비를 베이직하우스 이사로 전격 영입했다.

겸비는 화려하면서도 독창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현지 공략' 제품을 별도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퀘어 쌍희 앵클'은 중국 전통문양인 '쌍희'에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스커트에 어울리는 글래디에이터 스타일의 샌들이다.

겸비 관계자는 "올해 추가 매장 확대 계획은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나 장소와 시기 등은 논의할 부분이 많아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는 하반기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그룹형지는 중국 현지에 계열사 우성I&C의 남성복 '본지플로어'와 '예작' 매장을 연내 10개를 여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유통망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중국 소주 태화백화점에 본지플로워 매장을 입점시켰고 두 브랜드는 9월 중 중국의 장가항 만바터백화점과 상해 신세계백화점에 각각 매장을 오픈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지의 상해법인은 샤트렌·캐리스노트·와일드로즈 등 주요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 전용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는 중국·대만 지역 아웃도어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만 타오위엔 따장 쇼핑센터에 와일드로즈와 샤트렌의 복합 매장 오픈을 코 앞에 두고 있고 9월 중 선보일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가을 피부 '앰플'로 촉촉하게

고농축 성분 화장품… 건조함·주름 개선 케어

환절기 건조해진 피부로 '앰플형' 화장품을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 관계자는 "소량으로도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앰플 제품은 일반 화장품 대비 효과가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앰플형 제품은 스킨케어 시 토너로 피부결 정돈한 뒤 사용하는 게 좋다. 영양 성분이 고농축된만큼 에센스나 세럼처럼 지나치게 많은 양을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발라야 한다.

크림과 한 방울씩 섞어 넓게 도포하는 방법도 있다.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등 기초 화장 단계에서 소량 섞어 바르면 좀 더 촉촉한 피부를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는 본인의 피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번들거리지 않는다.

◆미백·주름개선·보습 케어

최근 출시되는 앰플 제품은 미백, 주름개선, 보습 등 한 가지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과 전문의 안건영 원장은 "본인의 피부 고민에 맞는 앰플형 제품을 꼼꼼히 골라 활용하면 스킨 케어에서 단기간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수딩 앰플'은 피부의 '집중 진정'에 중점을 둔 제품이다. 미세먼지 및 오염 물질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출시됐다. 식물 유래 추출 성분을 23% 이상 고농도 함유해 자극 받은 피부를 가라앉히고 피부의 붉은기와 트러블을 진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4주 활용 후 붉은기가 크게 개선되는 임상 결과까지 갖췄다.

소량의 앰플을 개별 포장한 리리코스의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는 필수 미네랄을 함유한 고농축 수분 앰플로 메마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 더샘의 '파워 앰플 6종'은 보습·미백·모공관리 등 6가지 타입으로 나눠 출시해 피부 고민별로 다양하게 골라 쓸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K2, 레오파드 스텝 등산화 'EM 뮤토'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3일 서울 성수동 K2 본점에서 2014 가을·겨울 신제품 트레킹화 'EM 뮤토'를 선보이고 있다. EM 뮤토의 에너지 무브먼트 셀은 레오파드(표범)의 사뿐한 발걸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파일론보다 반발탄성을 15% 향상시킨 중창이 특징이다. /K2 제공

달리기·산행 신발 골라 신는다

특화된 기능으로 제품 차별화 나서… 쾌적함 강조

달리기와 산에 오르기 좋은 가을을 앞두고 발이 편안한 기능성 신발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발 한 켤레로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올인원' 제품보다 개개인의 러닝·산행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푸마는 최근 독자적 러닝화 기술인 '어답티브 러닝'을 적용한 '2014 모비움 러닝화'를 두 가지 버전으로 내놨다.

'모비움 엘리트 스피드'는 5~10km 마라톤 대회를 한 번 이상 참여한 러너를 위한 신발로 부드럽고 편안한 착화감이 특징이다. '모비움 라이드'는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초보자용으로 자연스러운 착지를 통해 러닝을 익혀나가는 이들에게 알맞다.

두 제품 모두 고양이의 발바닥에서 영감을 얻는 아웃솔을 사용해 발이 바닥에 닿을 때 탄력이 극대화돼 안정감 있는 착지를 돕는다.

아웃도어 업계도 마찬가지다. 가벼운 워킹·산책부터 고강도의 등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산행 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K2의 '플라이워크 옵티멀 프로2'는 둘레길과 같은 다소 거친 지형에서 많은 걷는 이들을 위해 개발됐다. 갑피에 메쉬와 가죽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해 방수·투습·통풍성이 뛰어나 오래 걸어도 발이 쾌적한 것이 특징이다. /박지원기자

강강술래 "택배마감 4일까지 연장"

추석연휴 정상영업, 선물세트 현장판매 2+1덤 증정 등 알뜰외식 지원 이벤트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추석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4일 오후 2시까지 택배 마감을 하루 연장한다.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주문 시 무료로 배송해주며, 한우 찜갈비와 프리미엄세트를 제외한 양념육과 가공식품만 구매 가능하다.

한우불고기1호(1kg)는 5만원, 한우불고기2호(1.5kg) 7만원, 강강양념1호(16대) 9만원,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 9만원 등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ℓ·5팩·15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세트(350mℓ·5팩·10인분)는 2만2500원, 방부제·조미료·발색제를 넣지 않은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는 5만1600원에 선보인다.

또 추석을 맞아 가족이나 친지·친구와 함께 외식을 계획하거나 명절 음식에 질린 고객을 위해 연휴기간 전 매장에서 정상영업을 한다.

택배마감 이후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선 양념육과 프리미엄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전 매장에서 현장할인 판매한다.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서초점과 여의도점은 한우모둠구이·왕양념갈비·한우광양불고기, 역삼점은 왕양념갈비 구이메뉴를 2인분 시키면 추가로 1인분은 무료다. /정영일기자 prms@

"앨범 만들며 부담감에 잠도 못이뤘다"

두 번째 정규 음반 '에볼루션' 발표한 박재범

한 때 아이돌이었던 박재범(27)이 알앤비·힙합 장르의 가수 '제이 팍(Jay Park)'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첫 번째 정규 음반 '뉴 브리드(New Breed)'에 이어 약 2년 6개월 만에 발표한 두 번째 정규 음반 '에볼루션(Evolution)'은 제목 그대로 그의 진화된 모습이 담겨있다. 그는 2일 오후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느껴져서 '에볼루션'이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밝혔다.

타이틀 곡 '소 굿' 마이클 잭슨에게 영감 받아
댄스부터 정통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 소화

◆정통 R&B 힙합 가수, 제이 팍

이번 앨범 한 장으로 박재범의 전부를 설명할 순 없지만 그 어떤 아이돌도 해내지 못했던 길을 꾸준히 걸어온 '제이 팍'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소 굿'을 비롯해 '좋아' '아이 라이크 투 파티(I Like 2 party)' 등은 그의 발랄한 매력이 묻어난다. '웰컴(Welcome)' '올라타(Ride me)' 등은 끈적한 비트의 R&B로 그의 섹시한 매력을, '사실이야(1Hunnit)' 'GGG' '미친놈' 등의 노래는 노골적인 가사의 힙합으로 그의 장르 소화 능력을 볼 수 있다.

이번 음반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2·3년 전에 만든 노래들을 들어보면 한국말도 서툴고 가사도 잘 못 썼다. 실력도 부족해서 어색하고 부끄럽다"며 "지금 노래도 5년 뒤에 들어보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만에 음악 방송에도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소 굿' 활동을 하면서 세 번째 음반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으로 연결된 식구, AOMG

그는 자신을 늘 따라다니는 아이돌 꼬리표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해탈한 모습을 보였다. "어릴 때부터 힙합과 R&B를 듣고 자랐고 제 삶 자체가 힙합이었다. 근데 그런 걸로 알려지지 않아서 답답했다"며 다소 거칠어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 진짜 박재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 이런 사람인데 아이돌로만, 또 어떤 사건들로만 알려지니까 답답했다. 난 이런 음악하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처음엔 실력이 부족해 잘 못했다"며 "솔로가 되고 나서 셀프 프로듀싱을 고집해 왔다. 근데 잘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건 내 고집 때문이다. 반응을 떠나 스스로 만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앨범도 장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 17곡이나 실은 이유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라며 "당연히 (앨범을) 팔아야하지만 그걸 우선으로 두고 만든 앨범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솔로 가수로 안정된 길을 걸어오고 있는 그의 곁엔 힙합레이블 AOMG가 있다. 사이먼 도미닉(쌈디)·그레이·로꼬·라도 등 힙합신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자들이 박재범의 음악 작업을 함께하는 동료이자 친구로 곁에 있다.

이번 앨범도 역시 박재범의 오랜 친구인 차차말론과 AOMG 대표 프로듀서 그레이의 손을 거친 곡이 많다. 그는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즐겁다"며 "주위에 훌륭한 아티스트가 많아서 영광이다. 서로 존중하면서 많이 배우려 한다. 그래야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좋아(Joah)' 상큼함 잇는 '소 굿(So Good)'

이번 음반엔 앞서 발표한 싱글 '좋아' '메트로놈'을 포함해 총 17곡이 수록돼 있다. 타이틀 곡 '소 굿'은 그의 우상 마이클 잭슨에게서 영감을 받은 곡이다.

국내 브라스밴드인 커먼그라운드가 함께한 '소 굿'은 미디엄 템포의 경쾌한 댄스곡으로 박재범의 청량한 목소리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마음을 노래한 가사가 특징이다. '좋아'를 좋아했던 팬들은 이번 '소 굿'에 빠질 만 하다.

그는 "마이클 잭슨은 어릴 때부터 존경했던 뮤지션이지만 가수가 되고 나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더 크게 느껴져서 더욱 더 좋아하기 시작했다. 마이클 잭슨에게 영감을 받지 않은 가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 굿'을 쓰고 난 두 달 뒤에 마이클 잭슨의 '러브 네버 펠트 소 굿(Love never felt so good)'이 공개돼 신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엠넷 '댄싱9 시즌2'의 스트리트 장르의 마스터로 활약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자타공인 가요계 춤꾼이다. '소 굿'의 안무 역시 마이클 잭슨이 떠오른다. 그는 "문워크를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며 "특별한 포인트 안무는 없지만 마이클 잭슨 같으면서도 최신의 느낌도 가미됐다"며 평키한 스텝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디자인/김아람

동방신기, 오리콘 DVD 차트 또 정상

5연속 통산 7회… 해외가수 최다 1위

동방신기(사진)가 일본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출시된 동방신기 라이브 DVD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4 트리'는 첫 주 10만4000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8일자 오리콘 주간 DVD 종합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동방신기는 오리콘 주간 DVD 종합차트에서 통산 7회 1위를 기록했다. 자신들이 세웠던 역대 해외 가수 사상 최다 1위 기록을 경신함은 물론, 5개 작품 연속 1위 기록도 세웠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해외 가수 사상 최다 연속 1위 기록도 달성했다.

동방신기는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BD)의 판매량을 합산해 순위를 집계한 '종합 뮤직 DVD·BD 차트'에서도 주간 1위를 기록했다. 해외 가수 사상 최초로 DVD·BD의 누적 판매량 200만 장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이번에 출시된 DVD와 BD에는 4월 시작해 총 60만 관객을 동원한 일본 전국투어 중 도쿄돔 공연 실황을 담았다. 당시 투어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미야기, 삿포로, 후쿠이, 니가타, 후쿠오카, 히로시마, 요코하마 등에서 열렸다.

한편 동방신기는 내년 2월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공연을 시작으로 도쿄, 삿포로, 나고야, 오사카 등에서 두 번째 일본 5대 돔 투어를 연다. /유순호기자

'꽃보다 할배' NBC 수출

국내 예능 최초 美 지상파에 포맷 판매

tvN '꽃보다 할배'(이하 '꽃할배')가 미국 방송사에 수출된다.

종합콘텐츠 기업 CJ E&M은 "tvN의 인기 예능 시리즈 '꽃할배'의 포맷을 미국 지상파 방송사 NBC에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CJ E&M은 올해 초 tvN '더 니지어스'의 포맷을 네덜란드에 수출한 데 이어 '꽃할배' 포맷을 한국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미국 지상파 방송사에 수출하는 쾌거를 낳았다.

'꽃할배'의 미국판 제목은 '베터 레이트 댄 네버(Better Late than Never, 더 늦기 전에)'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할아버지들이 젊은 짐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릴 예정이다.

제작엔 영화 '버킷리스트' '헤어스프레이' '시카고', TV 시리즈 '체인지 디바' '스매시' '해피랜드' 등을 만든 프로듀서 크레이그 자단·닐 메론이 참가할 계획이다. 배급은 스몰월드 IFT가 담당해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 방송할 계획이다.

이덕재 CJ E&M tvN 본부장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 포맷은 기존 아이디어 수출 등 제한적이었던 형태를 벗어나 신 한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단순 프로그램 판매 방식에서 한 차원 더 진화된 포맷 수출을 통해 우리 방송 콘텐츠의 독창적인 기획력과 완성도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방송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화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langkim@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

은비 사망… 동료 애도물결 연예계 충격 깊은 슬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애슐리, 권리세, 은비, 이소정, 주니·사진)멤버 중 은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레이디스코드는 대구에서 KBS 1 '열린 음악회' 녹화를 마치고 상경하던 중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지점)에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차량 뒷바퀴가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빗길에 바퀴가 빠지면서 차량이 몇 차례 회전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가 사망했다. 은비의 빈소는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5일이다.

또 다른 멤버인 권리세는 머리와 배 부위를 크게 다쳐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장시간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혈압이 떨어지고 뇌가 심하게 부은 상태라 수술을 중단하고 오후 중환자실에서 맥박 체크 등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장시간의 수술을 마친 3일 오후 현재 상태를 지켜본 후 수술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멤버인 이소정은 골절상으로 부상 부위의 수술을 앞두고 있다. 폴라리스는 "애슐리와 주니는 부상 정도가 다행히 심하지 않은 상태이나 큰 충격을 받아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직원들도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다"며 "충격을 받았을 팬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빨리 쾌차하기를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아이돌 가수들은 무리한 일정과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에 노출돼 왔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처럼 걸그룹 멤버가 일정을 소화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은 처음이라 팬들과 업계의 충격은 크다.

연예계 동료들도 큰 슬픔에 빠졌다. 레이디스코드와 데뷔 동기인 베스티는 MBC뮤직 '쇼 챔피언'에서 세상을 떠난 은비를 애도하기 위해 검정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올랐다. MBC '위대한 탄생'에서 권리세의 멘토였던 가수 이은미는 소식을 듣고 아주대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권리세의 상태가 위중해 면회는 하지 못했다.

SNS에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미쓰에이의 수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다른 분들도 얼른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도할게요"라고 안타까워했다.

카라의 박규리는 "어떻게 이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발 소정, 리세 양도 무사히 회복해주길, 기도해주세요. 모두들"이라고 슬퍼했다.

2007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슈퍼주니어의 규현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걸 보는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치료 중인 멤버들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 선배 가수 엄정화, 방송인 전현무, 2AM의 조권, 걸스데이의 민아, 레인보우의 노을, 블락비의 지코·재효, 달샤벳의 수빈, 매드클라운, 작곡가 윤일상, 아나운서 공서영 등 여러 동료들이 슬픔을 전했다.

레이디스코드는 김범수, 아이비, 양동근의 소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3월 선보인 5인조 걸그룹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엑소, 중국 명절 특집 방송 출연

'호남위성 2014 중추완회'서 톱스타들과 나란히

그룹 엑소(사진)가 중국 중추절 특집 방송에 출연한다.

엑소의 소속사 SM은 "엑소가 오는 8일 오후 9시(현지시간) 중국 전 지역에 방송되는 '호남위성 2014 중추완회'에 출연한다"고 3일 밝혔다.

엑소는 지난 2월 호남위성TV 정월대보름 특집 프로그램 '2014 호남위성 원소희락회'에 출연한 데 이어 이번 명절 특집 방송에도 현지 톱스타 가수 양종웨이·한레이·황이다 등과 함께 출연하게 됐다.

'호남위성 2014 중추완회'는 음악과 토크쇼가 합쳐진 예능 프로그램으로 엑소는 이날 '으르렁' '중독' 등 히트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엑소는 현재 첫 단독 콘서트 투어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일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엑소 프롬, 엑소 플래닛 #1-더 로스트 플레닛 인 자카르타'를 열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결혼적령기 넘긴 자녀때문에 속 타는 부모마음...

가연결혼정보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경원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지, 해는 넘어가지… 걱정이 크죠." 하미숙씨(56세 · 서초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ㅁ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하태경씨(61세 · 용산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딸은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문의 : 080-586-5000**

결혼정보회사,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결혼의 기본은 믿음, 가연은 고객과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信의 한 수"

元[으뜸 원]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종합 1위 기업, 가연"

〈랭키닷컴 2011, 2012, 2013 기준〉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4년 연속 및 '대한민국 중소 ·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 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 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입증받기도 했다. 또한 가연은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을 총망라한 제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사 미혼직원을 위한 결혼지원 서비스 및 '미팅파티' 를 통해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서울 테헤란로에는 만남부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17층 전관을 결혼 서비스에 특화 시킨 '가연타워' 가 있다.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는 업계 최대규모의 단일 사옥은 '고객중심 경영철학'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문의 : 080-586-5000**

願[바랄 원] "결혼은 내가 원하는 상대와 해야죠"

제대로 된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은 따로 있다

대기업 연구원 서승필씨(30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사전 정보없이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할 수는 없는 법. 결혼정보회사 회원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 해 봐야 할 내용들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와 서비스 품질 및 사후 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 엄격한 회원 신원 인증 절차와 철저한 보안. 그리고 전문적인 커플 •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알아보고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080-586-5000**

援[도울 원] "결혼 고민 앞에 망설일 필요는 없죠"

가연결혼정보(주) 노애숙 팀장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결혼정보회사의 문 앞에서 다소 어색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 가연결혼정보(주) 노애숙 팀장은 이렇게 조언한다. "결혼에 대한 고민조차 마음껏 털어놓을 수 없다면 과연 어떤 고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큰 열할은 물론 회원이 원하는 최적의 배우자상을 찾아 드리는 일이예요. 하지만 그 전에 회원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고민, 부담, 어려움에 대해 심층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커플매니저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결혼정보회사와 커플매니저가 수행하고 도움을 드리는 거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 하면 등급이라던지 노블레스라던지 하는 선입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고, 저희 가연에는 전문직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배우자상이 다르고 그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고 있죠. 그런의미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 수 있는 용기와 가치를 지닌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주저함과 망설임은 잠시 미뤄두셨으면 합니다. 결혼정보회사나 커플매니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 상대, 결혼생활, 혹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 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이자 전문적인 조언자니까요.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결정할 때 당연히 필요로 하는 건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들, 방향성 제시겠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고민하는 미혼남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자 보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문의 : 080-586-5000**

'비밀의 문' 한석규·이제훈

SBS 월화극, 남녀 재회 커플 트렌드 속 묵직한 존재감

한석규

올 가을 한석규·이제훈이 SBS 새 월화극 '비밀의 문'(부제 '의궤 살인사건')에서 남남 재회 커플의 묵직한 존재감을 보일 예정이다.

두 사람에게 '비밀의 문'은 의미 있는 작품이다. 영조 역을 맡은 한석규는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이후 3년 만에 또 사극으로 안방에 컴백한다. 사도세자 이선 역의 이제훈은 군 제대 후 첫 작품으로 '비밀의 문'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2012년 영화 '파바로티'에서 사제지간으로 함께 출연한 적이 있다. 장혁·장나라, 문정혁·정유미, 권상우·최지우 같은 남녀 재회 커플의 뒤를 이어 남남 커플의 매력을 보여줄 것이란 분석이다.

한석규가 맡은 영조는 학자와 중신들이 인정한 주자학의 대가이자 무명옷과 소찬을 즐기는 근면한 군주다. 다혈질이지만 눈물도 많은 입체적인 인물이다. '비밀의 문' 속 영조는 권력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백성들을 위한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 세자 이선(이제훈)과 갈등한다.

드라마 제작진은 "초기 기획단계부터 영조 역에 한석규를 0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가 지닌 무게감과 연기력, 대중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어우러져 시청자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영조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첫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비밀의 문' 예고 영상에서 한석규와 이제훈은 역사 속 실제 인물을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 잡았다. 특히 예고 마지막에 등장한 그림은 궁중의 여러 행사 과정을 기록한 그림인 의궤로 '비밀의 문'의 핵심 소재가 될 전망이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작품은 '절망으로 죽을 것인가, 희망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명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릴 것"이라며 "영조와 세자 이선의 이야기, 인간 이선이 꿈꿔 온 백성을 위한 정치와 그가 바라던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밀의 문'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하는 영조와 신분의 귀천이 없는 공평한 세상을 주장하는 세자 이선의 이야기에 궁중미스터리를 가미해 역사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이제훈

이정재 역대급 팬 서비스

'잘생김' 별명 만든 팬 만나 식사 대접

배우 이정재(사진 오른쪽)가 유례없는 팬서비스를 선보였다.

3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정재가 2일 팬에게 식사대접을 했다. 최근 방송에서 '이정재 잘생김' 별명을 지어준 팬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다"고 전했다.

'이정재 잘생김'은 지난해 영화 '관상' 900만 돌파기념 행사에서 찍힌 영상에서 시작됐다. 한 팬이 이정재와 악수를 하며 "오빠 얼굴에 김 묻었어요, 잘생김"이라고 말하자 실제로 무언가 묻은 줄 알고 얼굴을 만지던 이정재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정재는 '이정재 잘생김' 별명을 지어준 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팬과 연락이 닿아 식사대접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정재를 만난 팬은 "해당 방송을 보고 있다 연락을 달라는 말에 너무 놀랐다. 너무 좋아서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 어머니도 '공룡선생' 때부터 이정재 팬인데 나도 '도둑들'과 '관상'에서 보여준 연기 변신에 팬이 됐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직접 만들어온 '잘생김'을 선물해 이정재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정재는 "왠지 연락이 될 것 같았다.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것 같다. 인생에 이렇게 재밌는 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팬 분이 조만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든 다 잘 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정재는 현재 1930년대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암살 프로젝트를 그린 영화 '암살'을 촬영 중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HOT PHOTO

한복 차림 씨스타 단아한 반전 매력 그룹 씨스타(효린·보라·소유·다솜)가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추석 인사를 전했다. 씨스타는 3일 소속사 스타쉽 공식 트위터에 "올해도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씨스타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아이 스웨어'와 함께 하는 추석 되세요" 라는 글과 함께 한복 사진을 게재했다. 섹시한 무대 위 모습과 다른 청초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효진기자

MC 신동엽 '케미 마법사'

아나운서·모델·가수 등 다양한 직업군과 호흡

'만인의 MC' 신동엽(사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들과의 호흡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동엽은 함께 출연하는 MC들과 남다른 '케미'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이다.

신동엽의 진가는 직업군이 서로 다른 다양한 MC들과 함께할 때 빛을 발한다. 지난 2001년부터 13년째 진행을 맡아 온 SBS 'TV 동물농장'에서 그는 초창기 윤현진 아나운서부터 장예원 아나운서까지 오랜 기간 안정적인 호흡을 이끌어 냈다. 이 같은 호흡으로 '동물농장'은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JTBC '마녀사냥'에서는 모델 한혜진과 앙숙 같은 모습으로 색다른 조화를 보이고 있다. 그는 한혜진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가 하면 남·녀간의 미묘한 문제들을 솔직한 말로 주고 받아 보는 재미를 높였다.

가수 성시경과의 호흡은 그 중 최고다. 둘은 '마녀사냥'에 이어 오는 22일 첫 방송되는 올리브TV 요리 프로그램 '오늘 뭐 먹지'에서 2MC 체제로 방송을 이끌 예정이다. '19금 토크'에 이어 '착한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호흡으로 재미를 선사할지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처럼 아나운서·모델·가수 등 직업을 가리지 않는 신동엽의 마법 같은 케미는 그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라고 방송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신동엽의 소속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출연자들을 살뜰히 챙기며 상대방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방송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동엽은 현재 SBS '패션왕 코리아2' 'TV 동물농장', KBS2 '불후의 명곡', JTBC '마녀사냥', tvN 'SNL코리아', E채널 '용감한 기자들'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출연자들과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학철 kimc0604@

속편 딜레마에 맞선 최선의 결과물

전작 그림자 지우는 화려한 스타일 '눈길'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타짜-신의 손

영화의 속편은 안전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시도다. 전작의 인기를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전작에 못 미칠 경우 다른 작품들보다 더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작을 뛰어넘는 속편은 나오기 힘들다는 말이 정설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3일 개봉한 영화 '타짜-신의 손'(감독 강형철)도 다른 속편들과 같은 부담감을 안고 출발했다. 2006년 개봉한 '타짜'(감독 최동훈)가 워낙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개성 뚜렷한 캐릭터들, 짜임새 있는 스토리, 여기에 성인 취향의 액션과 멜로 라인이 적절하게 녹아들어 전국 684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동훈 감독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한 '타짜'와 어떻게 차별화할까? '타짜-신의 손'의 가장 큰 과제였다.

속편의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해 강형철 감독이 꺼낸 해결책은 바로 전작과 아예 다른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타짜-신의 손'에서는 영화의 스토리보다 영화의 스타일이 더 눈에 들어온다.

특히 편집, 미술, 조명 등 영화 기술적인 부분을 유난히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세련된 분위기부터 음침한 분위기까지 각기 다른 콘셉트로 등장하는 하우스는 대길의 성장 과정과 맞물리면서 영화에 볼거리를 더한다.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 그리고 동식(곽도원)에게 쫓기는 대길의 모습을 대길의 시점으로 담은 장면 등도 전작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 빠른 편집에 담은 속도감 넘치는 이야기 전개가 147분의 러닝타임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써니'에서 만날 수 있었던 복고적인 감성도 녹아 있다. 최승현이 연기한 주인공 대길의 학창시절 모습이 그렇다. 서울로 상경한 대길이 매혹적인 팜므파탈 우사장(이하늬)과 벌이는 애정 신을 팝송으로 담아낸 것, 그리고 나미의 '빙글빙글'을 배경으로 한 카체이싱 장면 등에서도 강형철 감독만의 색깔을 잘 느낄 수 있다.

캐릭터의 매력은 전작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최승현, 신세경이 연기한 주인공 대길과 미나보다 조연급 캐릭터인 동식 역의 곽도원, 우사장 역의 이하늬가 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8년 만에 고광렬로 돌아온 유해진은 삭막할 수 있는 영화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타짜-신의 손'의 현란한 기교는 때때로 전작을 지우기 위한 과도한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만큼은 전작을 떠올리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다. '타짜-신의 손'은 속편 딜레마에 대한 강형철 감독의 최선의 결과물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연정훈 카레이서 출신 도둑 연기

'달콤한 질주' 스크린 컴백

배우 연정훈(사진)이 영화 '달콤한 질주'(감독 한덕전)의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3일 연정훈 소속사 에스비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키노픽쳐스는 "연정훈이 영화 '달콤한 질주'의 출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달콤한 질주'는 전직 카레이서 출신 도둑과 사랑 한 번 못해본 4차원 성격의 여형사의 이야기로 달콤한 로맨스와 속도감 넘치는 카 액션을 그린 작품이다. 연정훈은 동생 때문에 카레이서의 꿈을 포기하고 도둑이 되는 남자주인공 우빈 역을 맡았다.

연정훈은 그 동안 배우 활동과 함께 카레이서로도 활약해왔다. 지난 7월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2014 페라리 챌린지 아시아퍼시픽-인제 레이스'에서는 포디움 최정상에 올랐다. 이번 영화에서는 자동차와 레이싱 마니아다운 전문성을 살려 속도감 넘치고 다이내믹한 카 액션을 보여줄 계획이다.

'달콤한 질주'는 9월 중 주요 캐스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말 크랭크인 한다. /장병호기자

정경호·정유미·김새론 강렬한 변신

공포 스릴러 '맨홀'로 색다른 도전

정경호·정유미·김새론이 영화 '맨홀'(감독 신재영)을 통해 강렬한 변신을 한다. '맨홀'은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 세계 맨홀을 지배하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그 속으로 납치된 자들의 목숨을 건 생존게임을 건 스릴러 영화다.

정경호는 '맨홀'에서 맨홀 안에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바깥세상 사람들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남자 수철을 연기했다. 3일 오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정경호는 "수철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인물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 연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 롤모델이 없어서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정유미는 하나뿐인 동생을 잃고 맨홀을 헤매는 여자 연서 역을 맡았다. 생애 첫 스릴러 도전이다.

3일 오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맨홀' 제작보고회에 주연 배우 정경호(가운데)와 정유미(오른쪽), 김새론(왼쪽)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새론은 '맨홀'에서 수철의 표적이 되는 청각장애 소녀 수정을 연기했다. 이번 영화를 위해 한 달 동안 수화를 연습하는 등 열정을 쏟았다. '맨홀'은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명량' 1700만도 넘었다

개봉 36일째 신기록 행진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이 마침내 1700만 관객의 벽도 넘어섰다. 개봉 36일만의 기록이다.

3일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명량'은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700만34명을 넘어섰다.

개봉과 동시에 역대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명량'은 개봉 이후 연일 신기록 경쟁을 이어왔다. 개봉 18일째에는 '아바타'를 뛰어넘어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으며 개봉 31일째였던 지난달 29일에는 매출액 기록에서도 '아바타'의 기록을 경신하며 명실상부한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했다.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명량해전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지난 7월30일 개봉했다. 추석 연휴에도 상영이 예정돼 있어 관객 동원을 꾸준히 이어갈 전망이다. /장병호기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토란국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추석 별미인 토란(土卵)은 땅에서 나오는 알이라는 뜻이다. 생김새도 그렇지만 영양이 풍부해서 지은 이름이다. 추석에 토란국을 끓이는 것은 우리 전통으로 다산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학유가 지은 농가월령가에도 "북어쾌 젓조기로 추석명절 쉬어보세/신도주 올벼 송편 박나물 토란국을/산사에 제물하고 이웃집과 나누어 먹세"라고 나온다.

옛날 사람들은 토란을 무척 좋아했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도 토란예찬론을 남겼는데 향기는 용연(龍涎)과 비슷한데, 감히 금제옥회를 놓고 소동파의 옥삼갱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고, 하늘나라 음식 수타의 맛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상에는 이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했다.

현대인은 듣도 보도 못한 음식과 비교하면서 토란국을 찬양한 것으로, 풀이하자면 옥삼갱은 토란국이다. 토란 알갱이가 마치 옥을 삶아 놓은 것 같다며 지은 이름이다. 수타는 인도 천축국에서 전해진 음식으로 우유로 만드는데 맛과 빛깔이 아름다워 하늘나라에서 먹는다는 소문이 났을 정도다. 용연은 고대 향수의 이름으로 용이 흘린 침을 모아서 만든다. 금제옥회는 수양제가 먹고 감탄했다는 농어회로 진나라의 장한은 이 맛을 보기 위해 벼슬도 버리고 낙향했을 정도다.

정리하자면 마치 옥을 삶아 놓은 것 같은 우유 빛깔 토란국이 냄새는 향수보다 더 향기롭고 맛은 벼슬도 버릴 정도로 맛있다는 농어회보다 더 낫다는 소리다. 우리 옛 그림에도 토란이 종종 등장하는데 토란이 무병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토란에 대한 옛 사람의 인식을 보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다.

옛날 사람들이 토란을 놓고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지만 토란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영양도 영양이지만 토란은 전분 크기가 작아 다른 작물에 비해 소화가 잘된다. 한방에서는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열을 식혀준다니 과식하기 쉬운 추석 음식으로는 안성맞춤이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5
	4		6	7			1	9
		5	8			3		
					2	1		
1	8						3	7
		6	1					
		7			9	8		
8	3			2	6		4	
2				8				

		6	7				9	
	9			4		5		
4	8					3		7
3		5	6					
			3		4			
					7	4		9
5		9					4	2
		8		7			5	
	3				2	6		

스도쿠 정답

9	7	1	2	4	3	6	8	5
3	4	8	6	7	5	2	1	9
6	2	5	8	9	1	3	7	4
4	9	3	7	5	2	1	6	8
1	8	2	9	6	4	5	3	7
7	5	6	1	3	8	4	9	2
5	6	7	4	1	9	8	2	3
8	3	9	5	2	6	7	4	1
2	1	4	3	8	7	9	5	6

2	5	6	7	1	3	8	9	4
7	9	3	2	4	8	5	1	6
4	8	1	9	6	5	3	2	7
3	4	5	6	2	9	7	8	1
9	1	7	3	8	4	2	6	5
8	6	2	1	5	7	4	3	9
5	7	9	8	3	6	1	4	2
6	2	8	4	7	1	9	5	3
1	3	4	5	9	2	6	7	8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노모 건강과 막바지 직장 걱정인데… 별일 없을 듯, 사회복지 공부하세요

Q 필담 여자 35년 5월 7일 음력 5시 30분
여자 62년 7월 1일 음력 9시~9시 30분

안녕하세요? 매일 선생님의 글을 보며 아침을 여는 애독자입니다. 막막할 때 몇 번 상담신청을 한 적도 있었고요. 저에게는 팔순이 되신 노모가 계십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픈 것 외에는 건강하신 편이구요.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가 장수하는 것만큼 큰 효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막바지라 여겨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100세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지 운세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2014년보다는 2015년부터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그로인해 2015년부터 투자하면 좋다는 감언이 주변에 있게 되어 없는 돈 있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데 2017년부터 손재가 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늘 상담 신청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음식에 섭생과 환경 및 영양상태와 병원 약품의 발달로 사망일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수명 상에 문제가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명(命)을 극할 때라고 하며 유명을 달리 하는 것도 식재(食財·음식섭생과 활동력)가 멸하는 시기인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모친께서 당분간은 별일 없으셔도 사주지지(地支)에 2016년도에 형충(刑沖)살이 있어 교통사고나 미끄러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섭생으로 유익한 음식이 될 수 있는 한 드시도록. 책자를 살펴보니 인삼이나 찹쌀, 소고기살, 마늘과 파, 들기름, 건어물, 김, 등의 온화한 음식이 좋군요. 돼지고기나 오징어 ,바나나, 맥주, 팥, 밀가루 음식은 안 좋으니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귀하는 정관 격으로 의리가 있고 단정하며 정도를 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공직생활이 제일 적합하고 보통의 지금처럼 직장생활도 적합한데 복성귀인(福星貴人)의 상으로 일생동안 복록이 따르니 경제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지금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운으로 가니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어 공부를 한다면 사회복지 관계되는 공부를 하십시오. 사회복지 사자격증이 어렵다면 다소 수월한 요양보호사를 신청해도 되겠으나 본인이 나이 들어 육체적인 일은 힘들 테니 복지권 안에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그동안은 직장 생활이 무난하였기에 앞으로도 봉급생활은 무난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4일 (음 8월 11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옛 관록이 빛을 본다. **60년생** 항상 웃을 수는 없으니 마음 비워라. **72년생** 시련은 사람을 성숙시키는 약이 된다. **84년생** 연인이 찜찜한 오해를 풀어 휴~.

49년생 욕심 부려 근심 만들지 말라. **61년생**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73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늦어 답답~. **85년생** 상사의 칭찬에 출근이 즐겁다.

50년생 진심이 빠지면 가짜다. **62년생** 폭넓은 대인관계 때문에 웃는 날~. **74년생**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다. **86년생** 벗에게 속내를 털어놓아도 무방~.

51년생 착한 자식 때문에 유쾌~. **63년생** 사표 낸 동료 위로할 일 생긴다. **75년생** 실효성 없는 계획은 빨리 접어라. **87년생** 몽니 부리는 연인의 투정 만만찮다.

52년생 옛 부하가 기분 좋게 한다. **64년생** 배우자 덕에 행복에너지 충전~. **76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이 된다. **88년생** 멍청하다는 소리 듣더라도 소신 지켜라.

53년생 순리 따르면 만사 편안~. **65년생** 생각이 많으면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진다. **77년생** 좋은 일엔 적극 동참할 것. **89년생** 주도한 일은 정상 궤도에 오른다.

42년생 꼼수 부리면 체면만 깎인다. **54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심신만 피곤~. **66년생** 자녀에 때이른 칭찬은 독이 된다. **78년생** 귀인을 만나 잠자던 꿈이 기지개~.

43년생 친한 사람과 돈거래는 삼가라. **55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67년생** 금융투자를 할 땐 퇴로도 마련하라. **79년생** 마음먹은 일에 변수가 생겨 괴롭다.

44년생 방심하면 화를 부른다. **56년생** 메시지를 줄 땐 확실하게 주라. **68년생** 모임에 가면 칭찬이 쏟아진다. **80년생** 잘 나갈 때 동료와 유대감 강화 신경 써라.

45년생 높은 곳 출입은 삼가라. **57년생** 나만의 꿈을 찾아 즐겁다. **69년생**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듬뿍 내리는 구나. **81년생** 상사에게 원하던 대답을 듣는다.

46년생 딴생각 하면 실수 부른다. **58년생**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는 법~. **70년생** 찜찜하지만 개입할 일 생긴다. **82년생** 주변의 지적에 귀 기울여라.

47년생 배우자 아픈 곳 건드리지 말라. **59년생** 구슬땀을 흘린 결실은 풍성하다. **71년생** 거절할 땐 단호히 거절할 것. **83년생** 오래된 꿈이 성사될 기미가 보인다.

태극전사 "국민의 마음 돌려놓겠다"

평가전서 신뢰회복 다짐… 감독 부재·일본과 비교는 부담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겠다."

남미 강호들과의 평가전 2경기를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에 내려진 특명은 '국민 신뢰 회복'이다.

대표팀은 오는 5일 베네수엘라와 경기를, 8일에는 우루과이와 경기한다. 대표팀은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허약한 경기력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의리' 논란으로 엔트리 선발부터 삐걱댔던 홍명보 호는 '회식 파동'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구멍을 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가전은 월드컵 이후 치러지는 첫 경기인 만큼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과의 크로스 매치라는 점,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른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오며 객관적으로 전력이 앞선 남미 팀들을 상대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루과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 베네수엘라는 29위로 57위인 한국보다 순위가 수십 계단 높다.

특히 우루과이는 에딘손 카바니(파리생제르맹), 디에고 고딘·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이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던 정예 멤버 상당수가 출전할 전망이다.

평가전을 앞둔 축구 대표팀이 2일 소집된 후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루과이축구협회는 지난달 2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일본과의 평가전에 나설 29명의 예비명단을 발표했는데 '핵이빨' 수아레스는 제외했다.

일본과의 전력 비교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크로스매치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일본은 5일 우루과이, 8일 베네수엘라와 맞붙는다.

일본 축구 대표팀의 개혁을 외치는 하비에르 아기레 신임 대표팀 감독의 첫 국제 경기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전은 일본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새 감독을 앉힌 일본과 이번 경기 결과를 놓고 비교당할 수밖에 없다.

미드필더 박종우(광저우 부리)는 "감독은 없지만 집중해서 국민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

임시 사령탑 신태용 코치는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국(전북 현대)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측면 공격수로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이 예상되며 이근호(상주 상무)는 이동국과 함께 공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 미드필더는 기성용(스완지 시티)·이명주(알아인)가 맡고 김민우(사간 도스)와 차두리(FC서울)는 좌우 풀백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베네수엘라 평가전 예상 베스트 11

5일 오후 8시 부천종합운동장(SBS중계)

FW: 이동국

MF: 손흥민, 이근호, 이청용 / 기성용, 이명주

DF: 김민우, 곽태휘, 김영권, 차두리

GK: 이범영

4-2-3-1

연합뉴스

美 도박사, 커쇼 앞에 베팅 포기

사이영상 확실… 항목 삭제

스포츠 전문 도박사들이 '지구 최강 투수' 클레이턴 커쇼(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무시무시한 투구 앞에 베팅을 포기했다.

미국 도박업체 보바다는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 수상자에 대한 베팅을 취소했다고 야후 스포츠가 3일 보도했다.

보바다는 홈페이지에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사이영상·최우수선수(MVP) 수상 후보를 대상으로 베팅을 진행하지만 유독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에 대한 항목은 개설하지 않았다. 야후스포츠에 따르면 커쇼의 사이영상 수상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전했다.

커쇼는 3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으로 시즌 17승을 달성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다승 선두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유일의 1점대인 1.70이다. 시즌 탈삼진 202개로 5년 연속 200탈삼진의 대기록도 세웠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클레이턴 커쇼가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AP 뉴시스

커쇼는 올 시즌 초반 부상으로 6경기 정도 나서지 못했음에도 이 같은 기록을 세우는 괴력을 보였다.

야후스포츠는 "시즌 초반 결장이 사이영상 만장일치 수상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추세로만 간다면 수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쇼는 타자들도 함께 경쟁하는 내셔널리그 MVP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보바다는 커쇼에게 1.67이라는 가장 낮은 배당률을 매겨 그의 MVP 수상 확률을 가장 높게 내다봤다. 마이애미 말린스의 강타자 지안카를로 스탠턴이 배당률 2.20으로 2위,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외야수 앤드루 매커천이 배당률 11.00으로 3위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

볼트, "경쟁상대? 치타 정도 돼야"

'인간계 최고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8·자메이카·사진)가 경쟁 상대로 치타를 지목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3일 자선 크리켓 이벤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도를 찾은 볼트는 "치타와 맞붙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볼트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상대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거침없이 "아무도 없다"면서 "누구도 날 꺾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스틴 게이틀린·타이슨 게이(이상 미국), 요한 블레이크(자메이카) 등을 좋은 경쟁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내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를 언급했다.

볼트는 이어 "치타와 맞붙는다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우사인 볼트가 치타까지 꺾었다'는 헤드라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볼트는 또 남자 100m(9초58)와 200m(19초19) 등 세계기록인 자신의 기록을 두고 "경쟁자들의 추격 범위에서 크게 앞서 있다"고 자평했다.

그의 자부심은 "선수로서 수 많은 기록이 생겨나고 깨지는 것을 보아 왔지만 나와 같은 위대한 기록을 내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정점을 찍었다.

한편 크리켓 팬이기도 한 볼트는 "어린 시절 크리켓과 육상 선수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아버지가 '자메이카 시스템에서는 대표팀에 들어가기 더 어려운 크리켓보다 육상을 하는 것이 낫다'며 나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30TH
1984-2014
SK telecom 30th Anniversary
SK텔레콤과 창조경제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로
동행합니다
창조경제
SK텔레콤
대한민국 어디서나 창조적 혁신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SK텔레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ICT 역량을 기반으로 벤처·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유망 잠재기술을 사업화하는 일-
그것이 결국 지역 경제의 고른 발전을 도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것이기에
SK텔레콤과 창조경제의 행복한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4 대전 벤처 / 연구소기업 창업 및 사업지원 공모전
SK텔레콤이 대전지역의 연구소기업 / 벤처기업 /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지원자격 • 연구소기업 / 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단, 대전지역에 사업장 설립 또는 설립 예정
공모분야 •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분야, ICT융합을 통한 기술 및 제조·서비스
※에너지, 반도체 분야 응모 가능(선발 시 관계사 연계를 통한 지원)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14년 9월 3일 ~ 9월 25일 18시 마감
• 심사절차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심사
• 인큐베이팅 시작 : 10월 중(추후 통보)
※공모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모 홈페이지(http://dci.or.kr)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발규모 • 10개 팀 내외(年)